

고려시대 『천지서상지』에 나타난 한중 고대 천지상서의 교응적 자연학*

김일권**

- I. 서론
- II. 『천지서상지』의 판본과 전승 문제
- III. 『천지서상지』의 구성과 신화자연학 텍스트
- IV. 고려시대 『천지서상지』의 교응적 자연학
- V. 결론

국문요약

이 글은 인간과 자연이 교감하는 방식으로서 천지상서를 통한 한중 고대의 교응적 자연학 관점을 더듬어보기 위하여, 우리 역사의 한 시기 동안 중요한 자연학 텍스트로 활용되었으나 지금은 묻혀져 버린 『천지서상지』를 재조망하면서, 여기에 담긴 천변지재(天變地災)의 논리와 오행지학적 상서재이론 방식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당나라 초기 저작된 『천지서상지』는 남북조의 상서재이학을 집성한 편찬물이고, 천지상서에 관한 기록을 여러 천문서, 도참서, 재이서, 예서 등에서 뽑아 모아, 하늘이 인간 역사에 관여하는 천견사상과 덕치의 상서부응 등 여러 천지상서의 교응론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 이 글은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년도 ‘글로벌시대 한국적 가치와 문명 연구’ 공동과정 지원을 받은 <동아시아 자연과 인간의 교응관계론 탐색에 관한 한국적 자연학과 치생의 문화론 연구> 2차년도 결과보고서 논문이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고려시대는 이 책을 통해 자신들의 교응적 자연학 논변을 풀어간 것으로 보이며, 천변제이론의 기준이 되는 분야론에 대해서도 28수 9주 성도분야설, 28수 12차 성도분야설, 5행성 측후분야설 등 여러 논리가 개진되어 있고, 빛나는 하늘의 천체인 삼광론(三光論)을 통해 해와 달과 별에 생기는 천변현상, 28수 별자리의 사방칠수, 내외관 전천 별자리 체계, 무리와 운기 현상, 천지사이의 풍우상설 기상현상, 월령의 계절 변화와 오행의 제이론, 일상기물에 따른 물질(物精) 제이론, 신라와 당나라가 천지맹약을 거행한 백제 취리산 회맹제의(665년 8월)를 비롯한 여러 제천의례와 계절의례 등 당시 고대인들이 인식하였던 천지와 물질, 자연과 인간, 생활과 자연의 관계론 등을 담아내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아, 고대 동아시아적 교응적 자연관을 풀어내기에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고려사』에서 『천지서상지』를 직접 활용하여 제이현상을 논한 3건의 기록은 필자에 의해 처음으로 발굴 조망되었고, 특히 『고려사』 「예지·군례」 중 <계동대나의> 조목은 당시 고려가 『천지서상지』에 따른 대나의를 거행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그 원전 부분인 『천지서상지』 권20 「제례편」의 <나조(儻條)>에는 분석 결과, 『주례』 「하관」 <방상씨조>의 축귀 의례 성격과 『예기』 「월령」의 계절적 환절의례 성격을 동시에 담아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과정에서 나례(儻)란 용어가 계절(時) 변화가 자연순리에 부합하지 않아 발생하는 곤란(困難)을 뜻하는 말이고, 그 계절 이변에 의한 역질과 재해의 발생을 억제하고 방지하는 일종의 계절조절의례가 나례(儻禮)로 성립 전개된 것임을 읽을 수가 있었다.

요컨대 고려시대 사천대(司天臺) 관원들이 천지 상서와 재변 및 의례 해석의 중요한 준거로 『천지서상지』를 적극 준용하였음을 볼 수가 있고, 이 책은 물응과 물질, 서응과 이징의 모든 것을 하늘과 땅과 사람 모두에게서 찾는 천지 상서의 신화 공간을 해석한 신화학리서 성격을 지남에 따라 고대인들이 사유하였던 신화자연학 교재이기도 하였다.

주제어 : 천지서상지, 신화자연학, 고려시대 교응적 자연학, 천지 상서와 재이, 천변과 기상제이론, 나례와 계절의례.

I. 서론

인간은 자연 속에서 태어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다 자연 속으로 돌아간다는 순정적 자연주의 철학은 전근대 사회가 지속적으로 추구하였던 삶의 양태이자 전형적 자연학의 관점이다. 단순화하자면 자연을 타자적 존재가 아니라 상호교감하는 교응적 존재로 간주하는 방식이 발달하였다 할 것인데, 문제는 이 자연에 대한 교감 정도에 따라 감응적 자연학과 유심적 자연학 및 생태적 자연학의 세 범주로 가를 수가 있고, 그 중에 조선 중후기 산림서류에 개진된 산림사상은 우리 산하풍토에 생위적응(生爲適應)하려던 생태 자연학의 주요 마당이었음을 살펴본 바 있다.¹⁾

본고는 이에 이어서 감응자연학의 면모를 살펴보기 위해 『천지서상지(天地瑞祥志)』라는 고대사의 새로운 문헌 발굴을 중심으로 천착한다. 이 문헌은 우리 역사의 한 시기에 중요한 자연학의 텍스트로 주목받았고 활용하였던 책이나 오랫동안 잊혀졌다가 최근에 새롭게 발굴된 귀중한 자료이다. 여기에는 제목 그대로 한중 고대의 천지 상서 관련 내용이 집성되어 있다. 특히 이 책은 고려시대에 활용되었던 천지 상서에 관한 종합서 성격이어서 더욱 주목되는 바이다.

II. 『천지서상지』의 판본과 전송 문제

이 문헌은 부산외대 권덕영 선생이 『백산학보』 52호(1999.3)에 「『天地瑞祥志』 편찬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 : 日本에 전래된 신라 天文地理書의 일례」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한국 고대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새롭게 발굴하면서 알려진 바 되었다. 이 논문의 요지는 일본 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에 소

1) 김일권, 「전통시대 치생의 문화론과 생태자연학적 산림사상」, 『동아시아 자연과 인간의 교응관계론 탐색에 관한 한국적 자연학과 치생의 문화론 연구』, 한중연, 2014. 10 발표논문. 여기서 한국적 자연학의 주요 세 범주로 제시한 감응자연학은 인간의 삶이 하늘과 자연의 물적 원리와 긴밀히 동류상응한다는 사유를 일컫고, 유심자연학은 노장학이나 화엄학의 주지적 자연주의 논의를 말하고, 생태자연학은 한반도의 생태적 지표에 우리 삶을 적응시키려는 치생적 생태문화론 흐름을 지칭하는 것으로 대별하였다.

장되어 있던 살수진(薩守眞) 편찬의 『천지서상지』(666) 자료를 국내에 소개하면서, 이 책의 찬자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문무왕대 병법가로 기록된 신라인 설수진(薛秀眞)일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하고서 잃어버린 신라사 문헌의 신발골로 조망하였다. 국내에 처음 언급되는 신자료라서 그 가치가 매우 높고, 신라사의 공백을 메우는 자료로 기대되었기에 학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책 제목부터 천지의 서상을 모은 책이란 뜻이고, 내용이 고대 천문과 상서에 관한 것이어서, 마침 이 때는 필자가 「고대 중국과 한국의 천문사상 연구」(서울대, 1999)로 박사학위를 받은 직후이고, 한중의 고대 천문사상을 연구하는 중이었기에 필자에게 이 논문의 검증과 자료 검토가 요청되었다. 한국고대사학회의 동학사 연례 학회에 참여하러 올라온 권덕영 선생을 2002년 2월 대전역 커피숍에서 뵙고 경도대학 소장 마이크로필름의 재복사본을 전해받았고, 이후 검토 결과를 한국고대사학회 제65회 발표회(2002.4.20., 국립대구박물관)로 발표하였으며, 이를 수정보완하여 학회지 논문으로 수록하였다.²⁾ 이 논문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한 결과 신라인 설수진으로 보기 어렵다 보았고, 이 책의 <계문(啓文)>에 기록된 그대로 당나라 고종대 천문 역상(曆象)을 담당하던 태사(太史) 살수진(薩守眞)의 편찬에 틀림없다고 결론지었다. 이 책은 장차 황제가 될 당시 당고종조 황태자 이홍(李弘)에게 찬진할 목적으로 천지의 상서 전반을 정리한 것이고, 그런데 이홍이 고종의 제5자로서 현경 원년(656)에 황태자로 책봉되고서 20년 뒤 상원 2년(675)에 축천의 뜻을 여러 차례 거슬렀다가 비명에 죽은 인물이다 보니 이 책의 유포와 인용이 어렵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 추정되었다.

그런데 필자가 이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고려시대 역사서인 『고려사』에 태조왕건 15년(932) 5월 갑신일조와 정종 6년(1040) 11월 무인일조 및 인종 8년(1130) 8월 을미일조에 “天地瑞祥誌云”이라 직접 인용되는 등 『천지서상지』가 당시 사천대(司天臺) 관원들이 천지의 상서재이를 해석할 때 참조한 주요 텍스트였음을 국내외에서 처음으로 밝히게 되었고, 그 끝에 이 책의 가치가 신라사가 아니라 고려사 연구에 귀중한 1차 자료의 발굴 원

2) 김일권, 「『천지서상지』의 역사적 의미와 사료적 가치 :찬자에 대한 재검토와 『고려사』所引 記事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26, 한국고대사학회, 2002.6.

전으로서 재조망될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또한 이 책은 中村璋八(1968)과 太田晶二郎(1972)의 그 찬자와 전승 및 보존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미 고대 일본에서 『三代實錄』 876년 8월 6일조와 『扶桑略記』 927년 9월 29일조 등에서 『천지서상지』에 의거한 천변현상 설명을 남기는 등 9세기 후반에서 시작하여 무려 16세기까지 꾸준히 활용되고 유통되었음이 밝혀진 바 있다.³⁾ 현재로서 『천지서상지』가 일본에서만 보존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 때문에 중국 북경도서관이 소장한 것은 1932년 일본 東方文化學院 京都研究所藏 抄本을 영인한 複印本이며, 이 자료가 중국 역대 천문서를 집대성한 『中國科學技術典籍通彙·天文卷』(1995) 제4책에 수록됨으로써 일반에 공개되었다.⁴⁾

이와같이 『천지서상지』는 7세기 당나라에서 편찬된 이래, 아마도 신라를 거쳐 9세기 고대 일본으로 전승되었고, 10~12세기 고려에서도 활용한 천문서임을 알 수가 있는 바, 그래서 이 책은 고대 한중일에 범용적이었던 천지상서에 의한 자연학 교재라 부를 수 있다고 하겠다. 이에 지난 논문은 찬자의 쟁점 중심으로 접근하였다면, 본고는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고대가 추구하였던 천지상서의 교응적 자연학 면모를 드러내려는 것이다.

Ⅲ. 『천지서상지』의 구성과 신화자연학 텍스트

1. 『천지서상지』는 살수진(薩守眞)의 권1 「계문(啓文)」⁵⁾에 언급되어 있듯

3) 中村璋八, 『天地瑞祥志について : 附引書索引』, 『漢魏文化』 7, 漢魏文化研究會, 1968; 太田晶二郎, 『天地瑞祥志略說 : 附けたり, 所引の唐令佚文』, 『東京大學史料編纂所報』 7, 1972.

4) 薄樹人 主編, 『中國科學技術典籍通彙·天文卷』, 河南教育出版社, 鄭州, 1995, 제4책.

5) 『천지서상지』 권1은 「조례목록(條例目錄)」이란 제하(題下)로 찬자 살수진이 이 책의 편찬 경위와 목적, 관련 용어 풀이, 전체 목차 등을 1.啓 2.明載字 3.明災異例 4.明分野 5.明災消福至 6.明目錄의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하고 있다. 통상적인 서문보다는 자세하고, 천지서상에 관한 찬자의 이론적 개진이 강조된 특성을 보인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편찬의 변을 담은 ‘계(啓)’이고 나머지는 그에 딸린 범례와 목록 정도에 해당하므로 여기서는 이 권1 전체를 포괄적인 「계문(啓文)」이라 별칭하여 그 특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 천지 서상에 관한 기록을 여러 천문서와 도참서, 재이서에서 뽑아 모으되 종류별로 편장하여 20편으로 구성한 책이다.⁶⁾

이를 편찬한 목적은 “하늘의 견계(譴誡)를 삼가 공경히 받들고 재일(災孽)을 미리 피하도록 하여, 천자 한 사람에게 경사가 있으면 백성이 또한 편안하게 되는 것이다.”(使祗承譴誡, 預避災孽. 一人有慶, 百姓又安.)라고 하여, 하늘이 꾸짖고 훈계하는 바를 잘 받들고 자연의 재변과 이열(異孽)을 예방함으로써, 천자의 올바른 정치교화를 이루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려는 것에 두고 있다.

여기서 견계(譴誡)는 고대 동아시아 정치사상에 중요한 줄기를 이루는 천견론(天譴論)을 일컬으며, 지상의 군주가 정사를 잘하고 잘못함에 따라 하늘이 그에 상응하는 견책과 상서를 내린다는 논리이다. 주지하듯, 공자가 『춘추』를 쓰면서 군왕의 잘잘못을 자연의 재변을 통해 포폄하는 춘추재이론(春秋災異論)을 펼쳤는데, 이 유가적 천견의 정치사상은 인간이 하늘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긴밀히 상호 감응한다는 천인감응 세계관으로 구체화된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재이론은 단순한 자연의 재난과 이변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의지가 반영된 유의미한 사건이 된다.

그렇다면 자연의 재변과 인간의 행위에는 어떤 연결성이 있으며 어떤 해

이 「계문, 파트를 번역하고 주석한 글이 필자의 논문 등을 바탕으로 삼은 「천지서상지 제1(김용천·김경섭·최현화 공역, 『동국사학』 25, 2003)로 나왔고, 뒤이어 권20의 번역까지 진행하고자 『천지서상지』(김용천·최현화 역, 예문서원, 2007)란 책으로 출간하여 참조가 된다. 이 번역서는 권1 「조례목록」과 권20 「제총재(祭惣載)」의 두 권차에 대해 원문과 번역문을 실었으며, 인용원전에 대한 교감도 진행하여 전체는 아니지만 『천지서상지』의 이해를 크게 돕고 있다. 또한 『천지서상지』에 대해 최근까지 일본측 연구를 정리한 미즈구치 모토키(水口幹記)의 『日本古代漢籍收容の史的研究』(汲古書院, 2005) 성과가 대폭 반영되어 있어 주목된다. 다만, 이 번역서에는 『천지서상지』의 성립과 독해에 가장 핵심이 되는 논지로서 천지 상서가 지니는 오행지학(五行志學)적 관점에 대한 이해도가 잘 드러나 있지는 않다.

- 6) 守眞憑日月之光耀, 觀圖謀於前載, 言涉於陰陽, 義開於瑞祥, 織分之惡無隱, 秋毫之善必陳. 今拾明珠於龍淵, 抽翠羽於鳳穴, 以類相從, 成二十卷. 物阻山海, 耳目米詳者, 皆據『爾雅』·『瑞應圖』等, 盡其形色, 兼注四聲, 名爲『天地瑞祥志』也. 『通彙』 4-315쪽.

본고의 『천지서상지』 원전은 『中國科學技術典籍通彙·天文卷』(薄樹人 主編, 河南教育出版社, 鄭州, 1995)의 제4책에 실린 영인본을 기준으로 삼았다. 『통휘』 4-315는 제4책 315쪽이란 뜻이다.

석의 틀로 접근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의 문제로 나아가게 된다. 이 재변의 해석 방법론은 시대를 거듭하면서 지속적으로 주목되고 다양하게 개진되었는데, 전국시대 『상서』 「홍범편」에 기자(箕子) 명의로 제시된 홍범구주론(洪範九疇論)은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자 천견재이사상의 경전적 권위가 부여된 것이며, 다음은 전한초 동중서(董仲舒)가 『춘추번로(春秋繁露)』를 통해 같은 종류끼리 감응한다는 동류상응(同類相應)의 천인감응 원칙론과 함께 음양오행론을 크게 활용한 춘추오행학으로 이론들을 강화하였고, 후한초 반고(班固)는 『한서(漢書)』를 편찬하면서 오행지(五行志)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역사서 편찬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자연의 재변을 폭넓게 해석해내는 이른바 오행지학(五行志學)적 자연학의 밑바탕을 제공하였다.

이 오행지학의 주요 골격은 대략 세 가지 범주로 나뉘지며, 첫째는 수화목금토의 오행 성질에 따라 기상이변과 자연재변을 분류하여 기술하는 오행재이론(五行災異論) 범주이고, 둘째는 홍범구주론에 의거하여 인간의 행위 유형을 용모, 언어, 시각, 청각, 사변(貌言視聽思)의 다섯 가지 사태로 환원하여 사건을 재구성하는 오사재이론(五事災異論) 범주이며, 셋째는 천지인의 한 축으로써 인간을 대표하는 군주에 대해 매우 강한 견책과 자성(自省)을 요구하는 황극재이론(皇極災異論) 범주이다.⁷⁾

이들을 층차에 따라 부연하면, 오행재이론은 홍수와 가뭄, 지진과 화재 등 자연발생적인 대자연의 재해들을 오행별로 분류하여 해석하는 것이어서 전통시대 자연재해를 다루는 범주라 할 수가 있고, 오사재이론은 민간에서 세태를 풍자하는 동요가 유행하거나 풍속이 사치스러워지는 등 각종 사회현상이 발생하는 것에도 하늘의 뜻이 담긴 것이라 해석하는 소위 인문의 차원에서 접근되는 사회현상적 재이론 범주이다. 마지막 황극재이론은 군주인 황(皇)이 하늘의 뜻을 대행하여 정치교화의 중심(極)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올바른 정치를 촉구하는 범주이며, 정치가 올바르게 행해지지 않으면 일월식이 발생하고 혜성과 무지개가 출현하는 등의 일월난행(日月亂行)과 성진역행(星辰逆行) 재변이 발생한다는 것이어서 내용상 천변(天變) 위주의 재이론 범주를 다루며, 또한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마정(馬政)이나 사요(射妖), 군주의 상

7) 이 세 가지 재이론의 개념과 이들을 포괄하는 관점으로 오행지학적 자연관에 대한 논의는 김일권, 『고려사의 자연학과 오행지 역주』(한중연, 2011)에 자세히 개진한 바 있다.

징인 용사(龍蛇)의 재변 등을 함께 포괄한다.

이처럼 오행지학은 자연재해과 사회현상, 정치행위까지 두루 포괄하는 전통시대 감응적 자연학의 전형을 담은 체계이다. 이 관점은 자연과 인간이 별개의 구별된 존재가 아니며 모두가 하늘의 천의(天意)와 교섭하는 상관적 존재로서 상호의존성을 띠게 됨을 역설한다.

이같은 오행지 기반의 오행지학적 자연학이 『한서』 성립 이래 팽배해짐에 따라 천지 교응적 자연주의 사유가 더욱 발달하게 되었으며, 서양의 대자(對自)적인 자연주의와는 크게 다른 방향의 색채를 견인하기에 이른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고려시대의 자연학 역시 이와 동일한 호흡을 지닌다.

한편 『한서』 「오행지」에서 덜 주목되었던 개개 자연물에 대한 재이론적 관찰이 위진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확장되었고, 『위서』의 「영징지(靈徵志)」와 『송서(宋書)』의 「부서지(符瑞志)」란 편명이 보여주듯 각종 동식물과 자연물의 징후조차 모두 망라하려는 방향으로 치닫는다. 특히 부서(符瑞)란 주제는 『춘추』-『상서·홍범』-『춘추변로』-『한서·오행지』 등이 강조하던 재이(災異)와는 다른 측면을 강조한 관점이다. 재이가 천재지이(天災地異) 혹은 천변지재(天變地災)의 줄임말로써, 부정적인 재해와 재앙 및 이번과 변이를 주목한 것이라면, 부서는 가화(嘉禾)나 감로(甘露), 예천(醴泉), 지초(芝草) 등 덕치(德治)의 부응(符應)으로서 상서(祥瑞)로움을 긍정하려는 측면이 다분하다.

2. 당나라 초기에 편찬된 본 『천지서상지』는 바로 이런 관점의 변화를 반영한 문헌인 것이다. 살수진은 장차 황제가 될 동궁(東宮) 대왕전하(大王殿下)에게 덕치의 상서와 교화의 치복을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이 책의 찬진을 기획한 것이라 하겠다.

살수진이 「계문」에서 “이른바 서상(瑞祥)이란 것은 길흉이 먼저 나타나면 화복이 뒤따라 응하는 것으로, 비유컨대 소리가 텅빈 계곡에서 일어나고, 거울이 바탕과 형상을 비추는 것과 같다.”⁸⁾고 서술하여, 천지간에 각종 서상이 지닌 길(吉)과 흉(凶), 화(禍)와 복(福)의 양면을 동시에 말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천지서상지』에는 춘추오행지 계통에서 견지된 견책의 재이론과 영징부서지 계통에서 강조된 덕치의 상서론이라는 두 상반된 관점이 함께 개진

8) 所謂瑞祥者，吉凶之先見，禍福之後應，猶響之起空谷，鏡之寫質形也，『통회』 4-316.

되어 있다.

「계문」 중 <명재소복지(明災消福至)>는 바로 재변이 소멸하고 복이 이르는 원리와 사례를 설명한 부분이며, “매양 전적을 펼칠 때마다 성스런 황제[聖帝]와 밝은 군왕[明王]들이 호천(昊天)을 공경하고 견계(謹誠)를 받들지 않음이 없었다. 무릇 제왕이란 덕이 천지에 짝하고 음양에 협계(叶契)하며, 정령(政令)의 발호 시행이 어둡고 밝음에 따라 작동하고 열리니, 휴징(休徵)과 구징(咎徵)이 감응에 따라 지어진다.”⁹⁾라고 하여, 제왕이 된 자가 하늘이 내리는 견책과 계고(戒告)를 성실히 공경하여 받들어야 한다는 당위적 근거를 성제명왕(聖帝明王)의 역사적 사례에서 찾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이르는 것이니, 재변이 화복(禍福)과 길흉(吉凶)이 되는 계기는 오직 임금된 자가 정사를 잘 닦는가 아닌가의 행위 여부에 달린 것임을 피력한다. 곧 『한서』 「오행지」에서 “인군이 정사를 잘 닦아서 공손히 그 징벌을 잘 다스린다면 재변이 소멸하고 복(福)이 이르며, 만약 정사를 잘 닦지 않는다면 재변이 번성하여 화(禍)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듯 길흉의 존망은 행함을 따라 화복을 이룬다.”¹⁰⁾고 한 재소복지(災消福至)의 재이론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재변은 한꺼번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재이가 모여 하나의 재앙을 이루거나, 혹은 재앙이 먼저 일어난 뒤에 재이가 출현하는 등 그 관찰과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그 예시로, 『천문요집(天文要集)』¹¹⁾을 지은 진나라 태사령 한양(韓楊)이 『치맹점(禘萌占)』에서 말한 8가지 중대한 성변(星變)이 너무 극단적인 사례임을 비판하고서, 재화(災禍)의 원리는 여러 재이가 일어난 뒤에 함께 하나의 화(禍)를 이루는 것(必待衆災, 并成一禍)이라 하였음을 수록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한 『치맹점』의 8조 성변은 모두가 왕의 교체를 뜻하는 현상으로 제시한 것이다. 곧 역수(曆數)의 기원(紀元)을 관장하는 섭제성(攝提星)이

9) 緬尋千古，每披典籍，聖帝明王，莫不欽若昊天，祇承謹誠也。夫帝王者，配德天地，叶契陰陽，發号施令，動開幽顯，休咎之徵，隨感而作，『통회』 4-319.

10) 『漢書』曰，“人君能修政，恭御厥罰，則災消而福至，不能修政，則災息而禍生。吉凶亡常，隨行而成禍福也”，『통회』 4-319.

11) 『수서』, 「경적지」의 천문가(天文家)에서 진(晉)나라 태사령을 역임한 한양(韓楊)이 『天文要集』 40권을 지었다고 기록하였다(天文要集四十卷，晉太史令韓楊撰).

옆으로 길게 펼쳐지거나, 천제가 타는 네 필 말의 수레를 모는 마부인 왕량성(王良星)이 말을 채찍[策星]질하듯 광망이 요동하거나, 하늘 창고인 천고성(天庫星)이 텅 비거나, 뾰족한 봉성(鋒星, 更河星)의 다른 이름)이 별빛뿔[光角]을 내거나, 전쟁을 담당하는 활모양 호성(弧星)과 사나운 이리의 낭성(狼星, 가장 밝은 Sirius)이 더욱 밝아지거나, 진성(鎭星, 토성)의 정기인 잔성(殘星)이 돋보여 나타나거나, 유성의 일종인 왕시성(枉矢星)이 흐르거나, 형혹성(熒惑星, 화성)의 정기인 치우기(蚩尤氣)가 출현하면, 이 여덟가지 성변은 각각 기성(紀聖)을 경장하고 왕을 교체함을 말하는 것이라 하였다.¹²⁾

이 『치맹집』의 8조 성변을 통해 고대인들이 천변을 본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엿볼 수가 있고, 또 인사의 변화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짓는지를 참조할 수가 된다.

다음으로 살수진은 재변을 설명하기에 앞서, <명재자(明載字)>에서 여러 학자들의 글자와 새김(字訓)에 차이가 많아지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만 따르는 폐단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서상지』에 쓰인 여러 상서재이 관련 용어를 모아서 설명하고 있어 적절한 참조가 된다. 하늘을 거스르는 재(災)와 땅의 본성에 반하는 요(妖), 덕을 거스르는 난(亂)과 정상적이지 않는 이(異), 사물의 변이가 속에서 발생하는 생(眚)과 때를 어겨 나타난 반(反) 등등. 이를 아래에 정리하여 고대인들의 재이론적 사유를 참작토록 한다.

- 재(災)와 요(妖): 『좌전』에서 “하늘에서 때를 거스르는 것이 재(災)이고, 땅에서 사물의 본성에 반하는 것이 요(妖)이다.”(天反時爲災, 地反物爲妖.) 두예(杜預)가 반시(反時)는 추위와 더위가 본성을 잃는 것(寒暑失性)이라 하였고, 또 하늘이 질서를 잃은 것을 재(災)라 하며, 이 재란 해친다(傷)는 뜻이다.(又天失曰災, 災之言傷也.) 재(裁)와 재(災)는 재(災)와 같은 글자이다. 두예가 반물(反物)은 못 사물이 본성을 잃는 것(群物失性)이라 하였고, 『한서』는 초목이 일찍 죽는 것이 요(妖)이고, 요(妖)는 어리다는 요(夭)와 같다. 완(禾+宛), 요(詔)는 요(妖)와 같은

12) 臣按『圖讖』曰, “非災必俱至, 或待衆災成一殃. 或一災則受殃, 或事在前, 災在後也.” 『鄙萌占』曰, “攝提橫, [守曰, 橫之言引而張也]. 王梁策馬, [策馬謂有光芒而動] 天庫虛, 鋒星角, [鋒星謂更河別名也] 弧狼張, [張, 明光也] 殘尤出, [鎭星之精] 枉矢流, [流星名也] 蚩尤出, [熒惑之精] 此八條, 各言更紀聖代王也.” 韓揚(楊의 오기)讖鄙萌言, “凡八變至重, 古今希有, 必待衆災, 并成一禍, 而萌占書, 別輕就重, 此萌所失也”, 『통취』 4-317쪽.

글자이다.

- 난(亂)과 이(異): 인간이 덕(德)을 거스르는 것이 난(亂)이고, 정상(定常)적인 것과 달라지는 것이 이(異)이다.(人反德爲亂, 異於常謂之異.) 또 병란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난(亂)이고,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구(寇)이다. 이(異)는 괴이(怪異)하다는 말이다.
- 열(孽)과 화(禍): 『한서』에 충치류(蟲多類)에 생기는 재변을 열(孽)이라 하고, 육축(六畜)에 생기는 재변을 화(禍)라 한다. 다리가 있는 것이 충(蟲)이고, 다리가 없는 것이 치(多)이다.
- 생(眚), 반(反), 양(殃): 사물의 변이가 속에서 발생하는 것을 생(眚)이라 하고, 신하와 자식이 반역하는 것을 반(反)이라 하고, 흉한 구양(咎殃)이 생기는 것을 양(殃)이라 한다.¹³⁾
- 승평(升平), 등(登), 평(平), 대평(大平): 『한서』의 장안(張晏) 주(注)에서, 백성들이 3년간 쌓아둔 것이 있으면 승평(升平)이라 하고, 3년을 넘는 여유 식량으로 생업에 나아가는 것을 등(登)이라 하고,(登은 잘 익는다는 熟의 뜻이다.) 다시 등이 되면 평(平)이 되고,(再登曰平) 6년을 넘는 식량으로 세 번 등하는 것을 대평(大平)이라 한다¹⁴⁾ 하였다.
- 겸(嗛), 기(飢), 기(饑), 근(饑), 강(歉): 『곡량전』에서 한 가지 곡식이 승평하지 않으면 겸(嗛)이라 하고,(식량이 모자란 것은 아니다) 두 가지 곡식이 승평하지 않는 것을 기(飢)라 하고,(『이아』는 곡식이 익지 않는 것을 饑라 하였다. 饑는 飢와 같은 글자이다) 세 가지 곡식이 승평하지 않는 것을 근(饑)이라 하며,(채소마저 익지 않는다는 뜻이다) 네 가지 곡식이 승평하지 않으면 강(歉)이라 하고,(『설문』은 텅 비어 주린 것이라 하였다) 다섯 가지 곡식이 승평하지 않는 것을 일러 대침(大祲)이라 하였다.(鄭玄은 음양의 기가 相浸하여 災를 이룬 것을 祲이라 하였다.)¹⁵⁾

다음으로 천변(天變)이나 성변(星變)을 설명하는 용어에 대해서도 『한서』 「천문지」에 주석을 붙인 위(魏)나라 맹강(孟康)의 주(注)를 인용하여 수록하고 있다. 일월박식(日月薄蝕)이란 말에서 식은 개기일식, 박은 부분일식을 뜻

13) 『漢書』에는 “蟲多之類謂之孽。孽則牙孽矣。及六畜，謂之禍，言其著也。及人，謂之病。病，病貌，言漸深也。甚則異物生，謂之眚。自外來，謂之祥。祥猶禎也”로 되어 있다. 『漢書』, 『五行志』, 제7中之上, p.1353.

14) 『漢書』, 『食貨志』, 제4上, p.1123.

15) 『春秋穀梁傳』襄公 24년조에 “五穀不升謂之大饑。一穀不升謂之嗛，二穀不升謂之饑，三穀不升謂之饑，四穀不升謂之歉，五穀不升謂之大侵”이라 한 바와 같다.

하는 면이 있는 등 역시 참조할 바가 적지 않다.

- 사(邪)와 정(正): 일월 오성의 운행이 궤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사(邪)라고 하고, 궤도를 따르는 것을 정(正)이라 한다.¹⁶⁾
- 존(存)과 망(亡): 열수(列宿)가 이지러지지 않는 것을 존(存)이라 하고, 항성(恒星)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망(亡)이라 한다.
- 실(實)과 허(虛): 천뢰(天牢, 하늘 감옥)에 별이 많으면 실(實)이고, 모두 나가 별이 적으면 허(虛)라 한다.
- 활(闊)과 협(陝): 삼태성(三台星) 사이가 서로 멀면 활(闊)이고, 서로 가까우면 협(陝)이다.
- 예(曳)와 합(合): 서로 끌어당기는 것은 예직(曳直)이고, 같은 사(舍)에 있으면 합(合)이라 한다. [守曰: 솨는 28수의 1宿와 같다.]
- 범(犯), 능(凌), 투(鬪): 7촌(寸) 이내로 광망(光芒)이 서로 미치는 것은 범(犯)이라 하고, 서로 마주보며 정면으로 지나가는 것은 능(凌)이고, 서로 부딪치는 것은 투(鬪)라 한다. [또는 유성이 침입해 이르는 것이 범(犯)이고, 천천히 움직이며 범하는 것은 간(干)이고, 빨리 달리며 누르는 것은 투(投)이고, 두 마리 소가 서로 들이받는 것 같은 것은 촉(觸)이라 한다.]
- 식(蝕)과 박(薄): 서로 능범하여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식(蝕)이라 하고, 해와 달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은 박(薄)이라 한다. [무함(巫咸)은 달이 별을 가리되, 별이 사라지면 월식성(月食星)이라 하고, 별에 빛이 있으면 성식월(星食月)이라 하였다. 『경방역전』에 해와 달이 붉고 누렇게 보이면 박(薄)이고, 또 서로 교차하지 않으면서 식(蝕)이 되는 것을 박(薄)이라 하였다. 위소(韋昭)는 기체가 가까이 닥치는 것이 박(薄)이고, 이지러지고 혈면 식(蝕)이라 하였다.]

다음으로 행성과 별이 만드는 천체 운동에 대한 용어를 여러 천문서에서 모아 수록하고 있다. 전통시대 역사천문학 연구에 참조가 되는 용어 풀이로서 주목할 만하다. 이 중에는 천문학적으로도 유의미한 내용이 적지 않다.

- 출(出)과 입(入): 갈 때가 아닌데 가는 것이 출(出)이고, 올 때가 아닌데 오는 것이 입(入)이라 한다.

16) 『한서』, 「천문지, 제6의 맹강 주석에서 사(邪), 존(存), 망(亡), 실(實), 허(虛), 활(闊), 협(陝)에 대한 다음 대목을 인용한 것이다. 孟康曰, “伏見蚤晚, 謂五星也。日月五星下道爲邪。存謂列宿不虧也, 亡謂恆星不見。虛實, 若天牢星實則囚多, 虛則開出之屬也。闊狹, 若三台星相去遠近也。”

- 승(乘), 수(守), 류(留): 위로 지나가는 것은 승(乘)이고, 배회하면서 그 도수를 떠나지 않는 것이 수(守)이며, [守曰: 배회는 방황하면서 가는 듯 오는 듯하는 것이니, 떠날 듯하면서 오래 머무는 것과 같다. 맹강은 자신의 별자리에 머무는 것이 수(守)라 하였다. 『광아(廣雅)』에서 守는 久라 하였다.] 머물면서 이동하지 않는 것은 류(留)이다. [守曰: 이는 머무는 시기가 다 되었는데도 오랫동안 머물면서 이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아』에서 류(留)는 오래 머무는 것이라 하였다.]
- 사(舍)와 요(繞): 운행이 정상적이면 사(舍)라 하고, 주위를 도는 것은 환요(環繞)라 한다. [守曰: 『주례』에 의거하면, 여행하는 자가 짐을 풀어놓는 올바른 곳을 사(舍)라 한다. 여행하는 중에 잠시 머물기 때문에, 『좌전』에서 “하룻밤 묵는 것을 사(舍)라고 한다”고 한 것이다. (守據周禮行者所解之正處曰舍也. 應行而暫住, 故左傳曰, 一宿爲舍也.)
- 구(句)와 기(己):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구(句)라 하고, 거둬 구(句)하는 기(己)라 한다. [『백호통(白虎通)』에서 기(己)란 꺾어 굽혔다가 다시 일어나는 뜻이라 하였다.]
- 변(變)과 동(動): 그 정상이 아닌 것이 포함되면 변(變)이라 하고, [또는 사물이 허물을 만들면 변이라 한다] 빛이 빛나면서 흔들리는 것을 동(動)이라 한다.
- 희(喜), 노(怒), 제(提): 운택하고 화순하면 희(喜)라 하고, 큰 것을 막고 강한 것을 싸고 있으면 노(怒)라 하고, 좌우에서 꺾박하는 것을 제(提)라 한다.
- 망(芒), 룡(角): 그 빛이 5촌 이상이면 망(芒, 별까끄라기)이라 하고, 1척 이내면 각(角, 별빛뿔)이라 한다.
- 지(遲), 평(平), 질(疾): 하루에 1~2촌을 운행하면 늦는 지(遲)라 하고, 5촌 이상 1척 이내면 보통의 평(平)이라 하고, 1도(度)이면 빠른 질(疾)이라 한다.
- 조(朧)와 늑(胸): 그믐에 달이 서방에 나타나면 조(朧)라 하고, 초하루에 달이 동방에 뜨면 늑(胸)이라 한다. [맹강은 “조(朧)는 달의 운행이 빨라 태양 앞에 있는 까닭에 일찍 출현하는 것이다. 늑(胸)은 달의 운행이 늦어 태양 뒤에 있으니, 마땅히 사라져야 하는데 다시 나타나는 것이라 하였다.”¹⁷⁾
- 영(盈)과 축(縮): 오성(五星)이 일찍 나오는 것을 영(盈)이라 하고, 늦게 나오는 것을 축(縮)이라 한다.

3. 그러면 살수진이 『천지서상지』를 어떤 관점에서 입론하고 편찬하였는지 그 이론적 기반 문제를 살펴본다. 이에 대한 내용은 「계문」의 <명재자(明載字)>에서 어느 정도 개진되어 있다.

그는 자신의 『서상지』에 인용한 경문(經文)이 당시의 “근대(近代) 유가(儒

17) 『한서』, 『오행지』, 제7下之下, p.1506의 孟康注.

家)에서 말하는 것과 왕왕 괴리되고 착종되는 바가 있다.”¹⁸⁾고 하면서, 경전 본래의 해석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였고, 그러면서 『상서(尙書)』 「홍범편」에서 은나라 기자(箕子)가 주무왕에게 설파한 홍범구주론(洪範九疇論)을 수록하였다. 이 56글자로 된 문장이 바로 『낙서(雜書)』의 본문이며, 자신의 『천지서상지』는 바로 이 홍범구주의 항목에 따라 종류별로 서술한 것이므로 “국가(國家)를 위한 서상(瑞祥)”은 이것으로 모두 설명될 수가 있다고 피력하였다.¹⁹⁾

주지하듯, 『상서』 「홍범편」의 홍범구주는 반고가 『한서』 「오행지」를 지을 때 핵심 이론틀로 삼았던 경문이며, 하늘이 우임금에게 내렸다는 치세(治世)의 대법구장(大法九章)으로서, 오행(五行), 오사(五事), 팔정(八政), 오기(五紀), 황극(皇極), 삼덕(三德), 계의(稽疑), 서징(庶徵), 오복(五福)·육극(六極)의 9개 범주를 일컫는다.

위 『서상지』에서 56글자라 한 것은 필사 과정의 오류이며, 『한서』 「오행지」에서 말한 65글자가 옳다. 이 홍범구주의 65글자 경문은 다음과 같다.

곧 홍범구주의 첫째 규범은 오행(五行)이며, 둘째는 오사(五事)를 공경히 쓰는 것이며, 셋째는 여덟가지 정사(八政)에 힘쓰는 것이며, 넷째는 다섯가지 기율(五紀)을 조화시키는 것이며, 다섯째는 군주의 중정(皇極)을 세우는 것이며, 여섯째는 세가지 덕(三德)을 다스리는 것이며, 일곱째는 의심나는 것(稽疑)을 밝히는 것이며, 여덟째는 여러 징험(庶徵)을 숙고하는 것이며, 아홉째는 다섯가지 복(五福)을 기르고 여섯가지 궁함(六極)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하였다.²⁰⁾

살수진에 따르면, 이상에서 제1 오행 범주는 『천지서상지』의 제16 「오행편」에서 다루었고, 제4 오기 범주는 해[歲], 날[日], 달[月], 별[星辰], 역수[曆數]를 말하며 『서상지』의 제3~12에 실렸고, 제6 삼덕과 제9 오복 육극 범

18) 今『瑞祥志』所列經文，與近代儒家，往往乖錯。但恐俗人少經多怪，貴遠賤近，守株膠柱，迷於變通。所以更求河雒本文也，『동휘』 4-316.

19) 凡此五十六字，皆『雜書』本文也。以類相從，分在諸篇也，爲國家之瑞祥，盡於此也，『동휘』 4-316.

20) 初一日五行，次二曰羞用五事，次三曰農用八政，次四曰協用五紀，次五曰建用皇極，次六曰艾用三德，次七日明用稽疑，次八曰念用庶徵，次九曰嚮用五福，畏用六極。凡此六十五字，皆雜書本文，所謂天乃錫禹大法九章常事所次者也，『한서』，「오행지」 권7상, 1316쪽.

주는 『서상지』의 제2 「인편(人篇)」에 실렸으며, 나머지 제2 오사, 제3 팔정, 제5 황극,²¹⁾ 제7 계의, 제8 서징 범주는 『서상지』의 각편에 나누어 실렸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천지서상지』의 성격이 홍범구주의 오행지학적 관점 아래 천지 자연에 나타난 제반 서상을 모두 모은다는 취지임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수록 내용 중에 풍우(風雨), 물질(物精), 금충(禽蟲), 백수(百獸) 등 다른 문헌에서 쉽게 보기 힘든 자연물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고, 또한 사물의 물리적 서술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특성을 보인다. 그래서 『산해경』이 신화지리서라면, 이 책의 성격은 신화물리서 혹은 신화자연학 텍스트로 부를 만하지 않을까 한다. 현대와 다른 방식으로 서술한 시대이고 보면, 자연에 대한 관심을 이만큼 다양하게 담아내기가 당시로서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 할 것이고, 그런 면에서 비록 상서와 재이라는 감응신화론 기초가 다분하다 하더라도 당나라, 신라, 고려, 일본의 고대 동아시아인들이 사유하였던 자연학에 대한 일면을 엿보는데는 좋은 자료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할 수가 있다. 앞서도 언급한 바이지만 자료가 귀한 고려시대에 활용된 문헌으로서 새롭게 발굴되는 가치가 있는 것이니 만큼 『천지서상지』가 지닌 고대적 자연학 텍스트로서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4. 그러면 이에 따른 『천지서상지』의 20권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서 그 신화자연학 내지 신화물리서 측면이 어떠한 지를 고찰한다.

전체 20권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것은 제1, 7, 12, 14, 16, 17, 18, 19, 20의 9권으로 절반에 못미치는 분량이다. 필사본으로 274쪽에 이르고, 1쪽에 10행 20자이니, 빈 면을 제외하면 대략 5만 2천자 내외가 남아있는 셈이다. 전체는 10만 글자를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추산할 수 있겠다.

아쉬움이 크에도, 다행히 전체 목록이 「계문」에 붙어있어 편찬의 전모를 구성하는 일이 어렵지는 않다. 그런데 목록의 목차명이 본문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필사 과정에 누락된 것인지 목차명은 있으나 그에 해

21) 예컨대, 제5 건용황극(建用皇極)에 대해, 황(皇)은 크다(大)는 뜻이고, 극(極)은 중정하다[中]는 뜻인 바, 일을 세울 때 크고 중정한 도를 써야함을 말한 것이라 하였다. 그러면 서 살수진은 황극의 재변은 운기(雲氣)와 용사(龍蛇)이며, 각기 『서상지』의 유사한 편에 실려있다고 하였다.

당하는 본문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아래의 목차가 어느 정도 글자 출입이 있을 수가 있음을 염두하되, 남아 있는 경우는 본문과 대조를 하였다. 또 각 편의 성격을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 필자가 해당 개요를 괄호로 덧붙였음을 밝힌다.

〈『天地瑞祥志』 20권 전체 목록〉²²⁾

* ■은 현전하는 부분. * 괄호는 필자가 매긴 주제어

* 목록내 번호: 원문에서 매긴 것이 제1~10, 12~14, 나머지 제11, 15-20은 필자가 매김.

- 제1권 (조례목록) 條目目錄 1.啓 2.明載字 3.明災異例 4.明分野 5.明災消福至 6.明目錄
- 제2권 (천지인 삼재) 1.三才始 2.天地像 3.天 4.天[地]²³⁾ 5.人 6.人變相
- 제3권 (일월성 천변) 1.三光 2.黃道 3.日蝕²⁴⁾ 4.救蝕 5.²⁵⁾日光變 6.日雜異 7.日鬪 8.晷 /1.月蝕 2.月光變 3.月雜異 /1.五星惣載 2.歲星 3.熒惑 4.鎮星 5.太白 6.辰星 7.五星會 8.[四星會]²⁶⁾ 9.三星會 10.二星會
- 제4권 (28수 :동방·북방칠수) 1.東七宿(附見六星) 2.北七宿(附見二星)
- 제5권 (28수 :서방·남방칠수) 1.西七宿(附見三星) 2.南七宿(附見三星)
- 제6권 (내관 102관) 內官九十八官(附見四官)
- 제7권 (내외관 :내관 51관 외관 92관) 1.內官卅六官(附見五官) 2.外官九十官(附見二官)
- 제8권 (유성) 1.流星名狀 2.流星卅八宿 3.流星內官 4.流星外官 5.流星晝 6.流星日月 7.流星五星(五星自流附見) 8.星 9.流星羣[羣]²⁷⁾上
- 제9권 (객혜성) 1.客彗惣載 2.客彗別名 3.客彗晝出 4.客彗出(日月辛) 5.客彗出五星 6.客彗出卅八宿 7.客彗出內官 8.客彗出外官 9.天漢
- 제10권 (무리 운기) 羣·雲氣 1.羣[羣]²⁸⁾珥狀 2.日羣抱珥 3.月羣 4.羣五星(五星自

22) 김일권, 「『천지서상지』의 역사적 의미와 사료적 가치」(2002)에도 목차를 제시한 바 있으나 이번에 원문 대교와 오탈자 문제를 전면 수정 보완하였다.

23) 원문의 天은 地의 오기일 듯함.

24) 원문의 蝕(동)은 蝕(식)의 오기로 보아 교정함.

25) 원문의 四는 五의 오기로 보여 교정함.

26) 원문에 비어 있으나 앞뒤 상황상 [四星會]로 보여 보충함.

27) 원문 羣(휘)는 羣(훈)의 오기일 가능성.

28) 원문 羣(휘)는 羣(훈)의 오기일 가능성.

暈附見) 5.暈+八宿 6.暈內官 7.暈外官 8.虹蜺(日旁虹蜺附見)

雲氣 1.雲氣惣載 2.正月朔旦雲氣 3.五色²⁹⁾雲氣 4.日旁雲氣 5.月旁雲氣 6.+八宿雲氣 7.內官雲氣 8.外官雲氣

제11권 (뇌전 상설) 雷·電 1.雷惣載 2.始雷 3.雷而無雲及雨 4.冬雷 5.雷而後電 6.軍[暈]³⁰⁾上雷 7.霹靂 8.電 / 1.陰噎 2.晝冥 3.露 4.雪 5.蔽 6.電 7.霜 8.霧 9.早 10.寒³¹⁾

- 제12권 (풍우 점후) 1.風惣載 2.風期日 3.正月朔旦[候]³²⁾風 4.五音風 5.六情風 6.八風(主客附見) 7.廻風[雨]³³⁾

雨 1.雨惣載 2.候雨 3.候雨晴 4.四時雨(正月朔附見) 5.當雨不雨 6.偏雨 7.無雲而雨(軍雨附見) 8.異雨 9.霖雨

제13권 (五事 災異) 夢 1.夢惣載 2.天地 3.人鬼神 4.人體 5.文書衣服 6.金玉瑟鼓 7.宅田 8.飲食·屎 9.訴訟 10.劍弓 11.龍蛇 12.六畜 13.禽獸 14.魚龜 15.水火 16.道路行獸 17.船車 18.山草木 19.冢墓

- 제14권 (五事 災異) 1.音聲 2.童謠 3.妖言 4.草³⁴⁾俗 5.神 6.鬼 7.魂魄 8.物精

제15권 (草木 災異) 1.農業(농업) 2.百穀³⁵⁾(백곡) 3.禾(화) 4.秬³⁶⁾(거창) 5.稻(도) 6.黍(서) 7.稷(직) 8.秣(출) 9.粟(속) 10.穠(제) 11.菽(숙) 12.麥(맥) 13.麻(마) 14.蠶(잠) 15.草(초) 16.蓍(시) 17.芝英(지영) 18.蕙³⁷⁾莆(경보) 19.華平(화평) 20.朱草(주초) 21.萑英(명영) 22.福并(복병) 23.延嘉(연가) 24.紫蓬(자봉) 25.平甫(평보) 26.賓連(빈련) 27.萍實(평실) 28.屈軼(굴질) 29.蜚廉(비렴) 30.菊(국) 31.蒺藜(질려)³⁸⁾ 32.苦買(고매) 33.薏苡(의이) 34.薑(강) 35.瓜(과) 36.薺(제) 37.葶藶(정력) 38.水藻(수조) 39.艾(애) 40.三蔓³⁹⁾(삼만) 41.葵(규) 42.福草(복초) 43.禮草(예초) 44.葳蕤⁴⁰⁾(위유)

- 제16권 (月令 五行) 1.月令 2.五行 木 火 土 金 水 (禮泉井附見)

- 제17권 (物精 災異) 1.宅舍 2.光 3.血 4.穴⁴¹⁾ 5.毛 6.衣服 7.床 8.刀劍 9.鏡 10.鼎 11.

29) 원문은 色의 이체자로 쓰여 있으나 폰트 지원이 안되어 色으로 표기함.

30) 원문 軍(군)은 暈(훈)의 오기로 보임.

31) 제11권 항목명에는 숫자가 없으나 필자가 편의상 붙여 표기함.

32) 본문 제목에는 [候]가 들어가 있음.

33) 본문 제목은 廻風이고, 또 내용상 雨는 잘못 붙여진 衍字임.

34) 원문에 革과 비슷한 글자는 草의 이체자. 본문에 草俗과 이체자를 혼용하고 있다.

35) 穀(곡)은 糲(곡)의 이체자임.

36) 원문 형태가 必凶匕의 합자형인 𪛗으로 보이고, 이 글자는 울창주 창(鬯)의 이체자임. 己는 亠으로도 읽힘. 거창(秬鬯)은 검은 가장쌀(黑黍米)로 만든 제례용 울창주 술.

37) 원문 글자는 艸+蕙이나 蕙으로 대체함.

38) 藜(러)는 藜(러)의 이체자임. 남가새 리(藜)와 상통함.

39) 원문은 (艸+蔓)이나 蔓(만)으로 대체함.

40) 원문 (+ + 藜)은 藜(우거질 유)의 이체자. 藜, 藜 등 여러 이체자가 있다.

釜 12.甌 13.甕 14.印璽 15.金膝 16.環 17.玉 18.貝 19.蕪 20.胡鉤⁴²⁾ 21.山 22.石 23.船 24.金車 25.根車 26.象車 27.山車 28.鳥⁴³⁾車 29.威香^[車]⁴⁴⁾

- 제18권 (禽蟲 災祥) 禽惣載(금총재) 1.鳳凰(봉황) 2.發明(발명) 3.焦明(조명) 4.鸛鶴(숙학) 5.幽昌(유창) 6.鸞(란) 7.吉利鳥(길리조) 8.富貴鳥(부귀조) 9.鶯鶯(악작) 10.商翔⁴⁵⁾(상상) 11.鷄鷄(계계) 12.海鳧(해부) 13.鶯丘(목구) 14.號⁴⁶⁾(호) 15.跂⁴⁷⁾踵(기중) 16.潔鉤(결구) 17.泉溪(호계) 18.酸興(산흥) 19.螢⁴⁸⁾鼠(자서) 20.鸛鷲⁴⁹⁾(필방) 21.勝遇(성우) 22.鷓⁵⁰⁾(우) 23.大鶚(대악) 24.鴉(주) 25.鷓(一名比翼) 26.鷓(구) 27.鶴(학) 28.鸛雀(관작) 29.鶯(아) 30.鴈(안) 31.鳧⁵¹⁾(부) 32.鵝鵝⁵²⁾(제호) 33.鶯(주) 34.鴈(역) 35.鷓(구) 36.白鶯(백로) 37.世樂(세락) 38.鷄(계) 39.雉(치) 40.鳥(오) 41.鷓(작) 42.鶯(순) 43.鷓胡(자호) 44.鶯(연) 45.雀(작) 46.鶯(안) 47.鷓鷓(구육) 48.鷓(격) 49.鷓鷓(구육) 50.反舌(반설) 51.載鴛(재임) 52.鶯(응) 53.鷓(구) 54.鶯(연) 55.鶯(호) 56.泉(호) 57.蟬(선) 58.蠅(승) 59.蠅蠅(멸몽) 60.胡蝶(호접) 61.蜂(봉) 62.蟪蛄⁵³⁾(당랑) 63.魚(어) 64.龜(귀) 65.虺(혜) 66.蟹(해) 67.虫(충) 68.蜘蛛(지주) 69.蝗(황) 70.蚯蚓(구인) 71.蟻(의) 72.螻蛄(루고) 73.蝦蟆(하마) 74.射妖(사요)
- 제19권 (百獸 災祥) 獸惣載(수총재) 1.麒麟(기린) 2.象(상) 3.馬(마) 4.牛(우) 5.羊(양) 6.犬(견) 7.虎(호) 8.狼(랑) 9.熊(웅) 10.猪(저) 11.麋(미) 12.麈(주) 13.麋(군) 14.麋⁵⁴⁾(괘) 15.鹿(록) 16.驪(장) 17.駿牙(준아) 18.狐(호) 19.菟(토) 20.猿(원) 21.狸(리) 22.獮⁵⁵⁾(유) 23.獮(달) 24.犀(서) 25.獮豸(해치) 26.兕⁵⁶⁾(시) 27.白澤(백택) 28.狡(교) 29.比肩(비견) 30.周巾(주건) 31.角端(각단) 32.狸力(리력) 33.長舌(장설) 34.狽(활) 35.

41) 穴(육)은 肉의 이체자.

42) 목록에는 있으나 본문에는 蕪(어), 胡鉤(호구)가 없다.

43) 이체자 형태를 권18의 글자와 대조하면 鳥(오)가 됨.

44) 목록은 威車(위거)이나 본문에 威香(위향)으로 표기되어 있고, 그 반절음을 許昌反이라 하므로 威香이 타당해 보임.

45) (羊+鳥)는 翔의 이체자

46) 목록은 이체자(號)로 표기하나, 본문에서 호(號)로 표기하고 있음.

47) 목록은 跂(발)이나 본문에서 반절음 丘跂反(구시반)의 跂(기)로 표기하고 있음.

48) 螢는 (此+鼠)의 이체자

49) (方+鳥)는 鷓의 이체자

50) 鷓(우)는 鷓(우)의 이체자. 새 종류로, 올빼미와 흡사하고 사람 얼굴에 네 눈에 귀가 있다. 이 새를 보면 큰 가물이 든다.

51) 원문 鳧(부)는 鳧(부)의 이체자.

52) 목록은 鵝(고)이나 본문은 鵝(호)임.

53) 蟪(랑)은 蟪(랑)과 같은 글자.

54) (鹿+旨)는 麋의 이체자

55) 獮(유)는 獮(유)의 이체자

56) 시(兕)는 兕(시)의 이체자

朱厭(주엄) 36.玃⁵⁷(기) 37.朱儒(주유) 38.蚩(비) 39.蝟(위) 40.鼠(서)(服翼附見) 41.龍(룡) 42.蛟螭(교리)

- 제20권 (祭禮 交應) 祭惣載 1.封禪 2.郊 3.祭日月 4.迎氣 5.巡狩 6.社稷 7.宗廟(拜墓附見) 8.藉田(蠶附見) 9.靈星 10.三司 11.明堂 12.五祀 13.高禘 14.祭風雨 15.雩 16.祭水 17.禘 18.儺 19.祭馬 20.治兵 21.祭向神 22.祭鼓舞 23.盟誓 24.振旅 25.樂祭 26.祭日遺事

5. 이상에서 권1 「조례목록」은 대왕전하에게 올리는 「계문」과 재이 용어 설명, 재이 해석의 사례, 천지의 분야설, 소재복지의 길흉 화복론에 이어 전체 목록까지 수록한 것으로 총론격에 해당한다.

이중 <명분야(明分野)>는 재이론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중요한 기반이 되므로 자세히 살펴본다.

살수진은 “대저 분야(分野)란 구주(九州)의 전야(田野)이며, 아울러 우리러서는 상천(上天)에 연계한 것이다. 그러므로 『주례』 ‘춘관’에 ‘보장씨(保章氏)가 성토(星土)로써 구주의 땅을 분변하고, 재요와 상서를 관찰하였다.’고 하였다.”⁵⁸⁾ 이와같이 분야는 지상의 땅을 9개 밭으로 나눈 것이며, 이에 대응하여 하늘에도 9개의 성토(星土)를 구분하여 지상과 상천을 대칭시켰고, 그 구주와 성토에 발생하는 요상(妖祥)을 살핀다는 것이다.

여기서 성토(星土)란 말이 흥미로운데, 하늘에 별의 땅을 만든 것이다. 『서상지』가 제시한 9개의 성토는 28수 별자리를 9개 구역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를 지상의 9주 분야와 연계하였는데, 이를 살수진은 분야지성(分野之星)이라 일컬었다. 말하자면 28수 9주 성토 분야론이 된다. 이에 대한 예시로 다음의 정나라와 진나라 경우를 수록하고 있다.

※ <28수 구주 성토 분야설>

9국(國) - 9주(州) - 9방(方) - 9 성토(星土)

정(鄭)나라 - 하남(河南) 예주(豫州) 지역 - 동남방 - 각수(角宿)와 항수(亢宿)

진(晉)나라 - 하내(河內) 기주(冀州) 지역 - 서남방 - 삼수(參宿)와 성수(星宿)

57) (豸+几)는 玃(기)의 본자. 토끼 주둥이에 뱀 꼬리를 가진 野獸.

58) 夫分野者，九州之田野也，並仰繫上天矣。故『周禮』曰，保章氏以星土，辨九州之地，以觀祲祥也，『동후』 4-318.

그런데 하늘의 별자리 구역을 9개로 가르다는 것은 동서남북의 8방위에다 중앙을 합한 9궁(宮) 관점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인데, 위의 각수, 항수 등은 적도 주변의 28수 별자리여서 중앙 방위에 배당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28수 별자리를 처음으로 9궁의 구천(九天)으로 분속하였던 『여씨춘추』 「유시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28수를 단순히 9개로 나누는 방식을 취하였었다. 이에 따라 구천 중 중앙 하늘인 균천(鈞天)에는 28수의 처음인 각수, 항수, 저수를 배치하였고, 동쪽 하늘인 창천(蒼天)에 방수, 심수, 미수를, 동북방 변천(變天)에는 기수, 두수, 우수를, 북방 하늘인 현천(玄天)에는 녀수, 허수, 위수, 실수를 배당하는 방식이었다.(표 1) 살수진이 말한 것은 각수(角宿)와 항수(亢宿)를 중앙이 아닌 동남방에 배당한 것이어서 『여씨춘추』의 구야론(九野論)과는 다른 계통임을 보여준다.

〈표 3〉 『여씨춘추·유시람』 및 『회남자·천문훈』에 실린 구야론

방위	중앙	동	동북	북	서북	서	서남	남	동남
9천	鈞天	蒼天	變天	玄天	幽天	顯天	朱天	炎天	陽天
28수	角 亢 底	房 心 尾	箕 斗 牽牛	婺女 虛 危 營室	東壁 奎 婁	胃 昴 畢	羯窩 參 東井	輿鬼 柳 七星	張 翼 軫

28수가 중앙 개념을 가질 수가 없다는 문제점 때문인지 『서상지』는 이어서 『낙서(洛書)』의 것이라 인용하면서, 28수를 12지 방위와 12차 성도 및 12주와 12국으로 대응하는 28수 12차 분야론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이 체계는 적도의 360도 원주를 12등분하는 관점이므로 한 분야당 30도 구간을 갖게 되며, 그에 따라 9주도 12주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서 12차(次)는 고대 중국에서 목성의 공전궤도를 관찰하고서 매년 목성이 머무르는 별자리 구역을 제1 성기차(星紀次)부터 매겨 제12 석목차(析木次)까지 순환하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12차 성도 관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28수 12차 성도 분야설>

12차(次) - 28수 분도(分度) - 12진(辰) - 12주(州) - 12국(國)

1. 성기(星紀) - 남두 12도~수녀 7도 - 축(丑) - 양주(楊州) - 오(吳)와 월(越)
2. 현효(玄杻) - 수녀(須女) 8도~위 15도 - 자(子) - 청주(靑州) - 제(齊)
3. 추자(婁嘗) - 위(危) 16도~규 4도 - 해(亥) - 병주(并州) - 위(衛)
4. 강루(降婁) - 규 5도~위(胃) 6도 - 술(戌) - 서주(徐州) - 노(魯)
5. 대량(大梁) - 위 7도~필 11도 - 유(酉) - 기주(冀州) - 조(趙)
6. 실침(實沈) - 필 12도~정 15도 - 신(申) - 익주(益州) - 진(晉)과 위(魏)
7. 순수(鶉首) - 정 16도~류 8도 - 미(未) - 옹주(雍州) - 진(秦)
8. 순화(鶉火) - 류 9도~장 17도 - 오(午) - 삼하(三河) - 주(周)
9. 순미(鶉尾) - 장 18도~진 11도 - 사(巳) - 형주(荊州) - 초(楚)
10. 수성(壽星) - 진 12도~저 4도 - 진(辰) - 연주(兗州) - 정(鄭)과 한(韓)
11. 대화(大火) - 저 5도~미 9도 - 묘(卯) - 예주(豫州) - 송(宋)
12. 석목(析木) - 미 10도~두 11도 - 인(寅) - 유주(幽州) - 연(燕)

이 12차 성도 분야론은 『한서』 「율력지」에서 처음 제시된 천문학 이론이며, 『서상지』는 이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여기서 축자해술 등의 12지는 지상의 방위가 아니라 목성이 운행하는 궤도인 천구상 황도의 위치를 말한다. 천구에는 방위가 있을 수가 없고, 또 황도상 궤도는 지구에서 시간으로 인식되는 것이므로, 이에 착안하여 1년 12월에 매기는 12지 부호를 대응하여 축자해술 등으로 환원시켰고, 그런데 목성의 운행 방향과 지상의 시간 방향이 거꾸로 대응하는 관계가 있어 자축인묘의 순서가 아니라 축자해술의 역순으로 배속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12지는 시간상 방위라 일컬을 것이어서 12세(歲) 혹은 12진(辰)이라 이름하게 된다. 남두와 수녀 사이의 구간에 12차의 처음인 성기(星紀)를 붙인 이유는 이곳에 태양이 동지날 머무는 동지점이 위치하기 때문이다. 성기의 말뜻도 그래서 별의 벼리라 명명한 것이라 이해된다. 또 이 성기차에 대응하는 12진이 12진의 처음이 자(子)가 아니라 축(丑)인 이유는 이 12차론을 처음 설립할 때 목성의 위치가 축년(丑年)에 있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구주는 지상의 중국 대지를 9궁으로 가른 것인데, 하나라 우임금에 가탁한 지리서 『우공(禹貢)』(『상서(尙書)』 소재)에 기주(冀州) 이하 9주가 처음 수록되었고, 이를 계승한 『여씨춘추』 「유시람」은 양주(梁州) 대신에 요서지역 연나라 분야인 유주(幽州)로 교체하고서, 여기에다 다시 9국(國)의 분야를 대응시켜 수록하였다. 이 「유시람」의 구주 분야는 예주(豫州, 周), 기주(冀州,

晉), 연주(兗州, 衛), 청주(靑州, 齊), 서주(徐州, 魯), 양주(揚州, 越), 형주(荊州, 楚), 옹주(雍州, 秦), 유주(幽州, 燕)이다.

이후 12차 분야설이 대두되면서 9국이 12국으로 늘어났고, 9주도 12주로 늘어난 것이 여기 『서상지』에 실린 28수 12차 12주 12국 분야설이다. 이렇게 12 분야설이 확립되고서는 천상에 천변이 어느 분야에 발생하는가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지상 지역의 길흉재이를 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서상지』는 춘추 위(魏)나라 성점가였던 석신(石申)의 이름에 가탁하여, “갑은 제(齊), 을은 동이(東夷), 병은 초(楚), 정은 남이(南夷), 무는 위(魏), 기는 한(韓), 경은 진(秦), 신은 서이(西夷), 임은 진(秦), 계는 북이(北夷)를 관장한다.”고 하여, 중국 주변의 나라를 10개의 십간(十干) 분야로 배당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는 을(乙) 분야가 되는 셈이다.

또 『서상지』는 『한서』 「천문지」를 인용하여 오행성 성토 분야론을 덧붙이고 있다.

“진(秦)의 강역은 태백성(太白星)으로 측후하고, 낭성(狼星)과 호성(弧星)으로 점을 친다. 오(吳)와 초(楚)의 강역은 형혹성(熒惑星)으로 측후하고, 조수(鳥宿)와 형성(衡星)으로 점을 친다. 연(燕)과 제(齊)의 강역은 진성(辰星)으로 살피고, 허성(虛星)과 위성(危星)으로 점을 친다. …”는 식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5행성 측후 분야설>

강역 - 측후 - 성점

진(秦)의 강역 - 태백성(금성) - 낭성(狼星)과 호성(弧星)

오(吳)와 초(楚)의 강역 - 형혹성(화성) - 조수(鳥宿)와 형성(衡星)

연(燕)과 제(齊)의 강역 - 진성(수성) - 허성(虛星)과 위성(危星)

송(宋)과 정(鄭)의 강역 - 세성(목성) - 방성(房星)과 심성(心星)

진(晉)의 강역 - 진성(수성) - 삼성(參星)과 별성(罰星)

오행성을 이렇게 대응시킨 이유는 강역의 방위에 따른 정도라 하겠다. 금성(金星)은 금(金)이므로 오행의 방위상 서쪽이고, 진(秦)나라는 중국의 서쪽 강역이어서 이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오와 초나라는 남쪽 강역이어서 남방의 화성(火星)이 담당하고, 연과 제는 북쪽 강역이어서 북방의 수성(水星)이 담

당하며, 송과 정은 동쪽이어서 동방의 목성(木星)이 담당한다. 그런데 진(晉)나라는 위치상 중앙이라기 보다 북쪽 강역이라 보이므로 토성이 아니라 역시 북방의 수성이 담당한다고 보았다.

이 때 측후한다는 것은 날씨를 점후한다는 뜻이어서 이들 오행성을 살펴 각 지역의 날씨를 미리 예상한다는 말이 된다. 『서상지』는 오행에 따른 오방색도 갖다 붙이는데, 『칠요천문(七曜天文)』을 인용하여, 적색은 초(楚), 청색은 제(齊), 황색은 위(衛), 흑색은 연(燕), 백색은 진(秦)을 맡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각 강역의 점성을 담당하는 별자리로 두 개씩을 덧붙인 이유는 이들이 28수의 사방칠수(四方七宿)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곧 방성과 심성은 동방 청룡칠수(靑龍七宿)의 중심 별자리이고, 목성이 동방의 기운이므로 이것으로 점성한다는 식이다. 오초 강역을 맡은 조수(鳥宿)는 주작(朱雀) 별자리의 다른 이름이며, 따라서 남방의 주작칠수(朱雀七宿)로 점성한다는 것이고, 허성과 위성은 북방 현무칠수(玄武七宿)의 대표 별자리이므로 북쪽의 강역을 담당한다고 보았다. 반면에 삼성과 별성은 서방 백호칠수(白虎七宿)에 속하는 별자리여서 서쪽의 강역으로 배당되어야 하는데, 서쪽 강역인 진(秦)나라가 이미 낭성과 호성으로 배당되어 있어서 나머지 남은 진(晉)나라에 대응시킨 정도로 보인다. 이 때 낭성과 호성은 28수에 속하는 별자리가 아니어서 무언가 착란된 것이 아닐까 보이며, 그렇지만 이 두 별은 서방 백호의 삼성(參星, 오리온)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서 서쪽의 별자리라는 인식이 가능하기는 하다. 아마도 진(秦)나라가 전국을 통일한 것에는 활을 상징하는 호성(弧星)과 사나운 이리를 상징하는 낭성(狼星)의 기운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점성적 믿음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이 『서상지』 권1은 점성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로서 지상의 주국(州國) 전야(田野)와 하늘의 성토(星土) 분야(分野)를 나누고 대응하는 각종 이론들을 설명하는 것에 많은 할애를 하고 있다.

6. 다음으로 권2는 목차상 천지인(天地人)의 삼재(三才)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부분이며, 앞에서 살수진이 흥범구주 중 삼덕(三德) 및 오복(五福)과 육극(六極)의 내용을 권2 「인편(人篇)」에 다루었다고 한 바 있으므로, 내용상 흥범구주론에 입각한 천지인의 재이론을 다루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여기서 삼덕은 상황에 따라 정직(正直, 곧음), 강극(剛克, 강함), 유극(柔克, 부드러움)을 적합하게 처리하는 것을 이르며, 이 때 극(克)은 능(能)으로, 스스로 성품을 잘 다스리는 것(克爲自治其性)을 말한다.

오복은 오래 살고(壽), 넉넉하고(富), 강녕하고(康寧), 덕을 즐겨 행하고(攸好德), 편안히 임종하는 것(考終命)이며, 육극은 요절횡사하고(凶短折), 질병들고(疾), 우환들고(憂), 가난하고(貧), 흉악하고(惡), 쇠약한 것(弱)이다.⁵⁹⁾ 따라서 오복은 천심(天心)에 합당하여 받는 보응(報應)이고, 육극은 불선(不善)하여 내리는 징벌을 이른다. 권2의 <인변상(人變相)>은 이런 내용을 담았을 것이다.

다음 권3은 <삼광(三光)>이라 제명을 달고 있듯이 하늘에 빛나는 세 개의 존재인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재변론을 다루었을 것이라 보인다. 이 삼광으로서의 별은 여기서는 오행성을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권3은 세 부분으로 나뉘고, 첫째는 태양에 대한 것이다. 태양의 궤도인 황도(黃道)를 다루었고, 일식의 재변과 이를 없애는 구식(救蝕)을 다루었으며, 그 밖에 태양에 햇무리가 생기고, 해귀고리(日珥) 등 여러 광학현상을 다루고 있다. 둘째는 달에 대한 것이며, 월식과 각종 달에 관한 천변현상을 다루었다. 셋째는 오행성에 대한 것으로, 먼저 오성총론을 말한 뒤, 세성, 형혹성, 진성(鎮星, 토성), 태백성, 진성(辰星, 수성)의 각각을 자세히 논하였고, 다시 이 오행성이 한 곳에 모이는 오성취합(五星聚合) 현상, 나머지 네 개 혹은 세 개, 두 개가 동시에 출현하는 현상을 다루고 있다.

다음 권4와 권5는 오행성 다음으로 중요한 28수 별자리를 다루었으며, 동방칠수, 북방칠수, 서방칠수, 남방칠수를 수록하고 있다.

권6과 권7은 하늘의 항성(恒星) 중에서 28수 별자리 외에 하나씩의 모양을 이루는 별자리 전체를 수록하고 있다. 내관(內官)은 기준선이 되는 적도 28수 별자리의 안쪽 별자리를 뜻하며, 북극성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려 적도 이북에 위치하는 별자리를 망라한다. 외관(外官)은 그 반대로 적도 28수의 바깥으로 적도 이남에 위치한 별자리를 뜻한다. 여기서 관(官)은 별자리 곧 성좌(星座)를 일컬으며, 고대에 별자리를 인간 세계의 관부(官府) 관직(官職)

59) 번역에는 김학주 역주, 『서경』, 명지대출판부, 1982, 151쪽과 清皮錫瑞撰, 『今文尙書考證』, 中華書局, 1989, 243-276쪽을 참조.

으로 인식한 흔적이다. 이들 수량이 많아서 권6은 내관 98좌와 그에 딸린 4좌를 다루었고, 권7은 내관 46좌에다 부속 5좌 및 외관 90좌와 부속 2좌를 다루었다. 모두 합하면, 내관이 153좌, 외관이 92좌로, 도합 245좌에 달한다. 이 수량은 당나라 초기에 편찬된 『진서』 「천문지」의 별자리 숫자인 245관(1290성)과 일치한다. 따라서 『서상지』의 권4, 5, 6, 7에 서술된 항성 별자리는 『진서』 「천문지」 체계를 따랐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진서』가 외관 71좌라 한 것과 차이가 나므로 이 문제는 현재 권7이 남아있어 이를 분석하면 좀더 자세한 비교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 문제는 후일의 기회로 돌린다.

다음 권8은 유성(流星)에 대한 형상과 현상을 망라하였고, 권9는 혜성과 객성에 대한 현상 전부와 은하수를 다루고 있다.

이상 권3에서 권9까지 7편이 모두 일월성신에 대한 것이며, 천상(天象)으로서 나타나는 천문현상 전체를 수록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천상의 천공 공간에서 발생하는 『서상지』 영역이라 하겠고, 그 다음 권10에서 권12까지 3편은 천공보다는 낮고 지상보다는 위에 펼쳐지는 기상현상들로서, 기상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이야기들이다.

권10은 무리와 운기를 함께 묶어 다루었으며, 달무리와 무지개 등 각종 무리와 각종 기체를 수록하였다. 권11은 우뢰와 번개에 대한 뇌전 및 우박, 이슬, 눈, 서리, 가뭄, 더위, 추위 등 여러 날씨현상을 다루었다. 권12는 내용이 남아있어 더욱 흥미로운 부분이며, 바람과 비에 대해 모두 망라하고 있다. 7세기 당시에 이렇게 자세한 기상현상을 세분하고 체계화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다. 우리의 신라와 고려가 이러한 기상 체계에 기초하여 기상현상을 인식하고 설명하였을 것이라 보면 그 의미는 더욱 커진다.

다음 권13에서 권19까지 7편은 오행지학적인 재이론에 따라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권13과 권14는 오사(五事) 재이 내용으로 포괄할 수가 있고, 권15는 백곡과 초목에 대한 재이, 권16은 월령의 계절 변화와 오행의 재이, 권17은 일상기물에 따른 물정(物精) 재이를 다루었고, 권18은 각종 조류와 충류, 어류를 다루면서 발생하는 재이와 상서를 수록하였고, 권19는 네 발의 각종 짐승을 수록하면서 백수(百獸)의 재이와 상서를 다루었다. 특히 권17에서 권19까지는 서술 형식상 해당하는 기물과 동물에 대해 각각의 도면을 침

부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일부만 전해지고 대부분은 사라져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이들 자료를 통해 당시 인식하였던 자연물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볼 수가 있어 당시의 자연관을 읽어내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된다.

마지막 권20은 길례(吉禮)로서의 제례 전체를 수록하여, 국가 차원의 제천 의례부터 1년 시간변화에 따른 계절의례들이 망라되어 있다. 또한 여기에는 나당연합군의 공략으로 멸망한 백제와 함께 3자가 천지맹약을 거행하는 취리산(就利山) 회맹제의(665.8)가 자세히 수록되어 있어 이 『서상지』(666.4)가 쓰여지기 불과 8개월 전의 사건까지 기록한 부분도 있어 당시로서 매우 생생한 제의 종합서 성격을 지닌다. 여기 길례가 대부분 천지, 일월, 계절, 산천, 수한(水旱)과 풍우 등 당시 고대인들이 인식하였던 천지와 물질, 자연과 인간의 관계 설정, 생활과 자연의 관계론 등을 담아내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아 고대 동아시아적 의례의 자연관을 풀어내기에도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보인다.

20권 전체의 구성을 일별하면, 권1에서 권9까지 9편은 천변 중심의 천문의 자연학 측면을 담고 있고, 권10에서 권12까지 3편은 기상 현상 중심의 기상의 자연학이 자세히 담겼고, 권13과 권14의 2편은 꿈, 의복, 육축, 도로, 선박, 동요, 귀신, 혼백 등 일상생활상 만나는 신비와 이상 현상에 대한 나름의 해명이어서 생활신비의 자연학이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며, 권15는 식물, 권16은 오행으로 분류되는 자연물, 권17은 기물, 권18은 금충, 권19는 동물을 다루고 있어 각종 분야별 자연물에 따른 상서 재이의 자연학으로 포괄할 수가 있고, 권20은 천인관계를 의례의 자연학으로 읽어낼 수가 있다. 이 전체는 묶어내는 키워드는 자연과 인간이 비분리되어 있다는 감응적 자연학이 될 것이다. 각각에 담겨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감응의 논리에 대해서는 분량상 추후의 기회로 돌린다.

IV. 고려시대 『천지서상지』의 교응적 자연학

1. 마지막으로 『고려사』에 인용된 『천지서상지』의 자료를 통해 고려인들의 자연학 면모를 엿보고자 한다.

먼저 『고려사』의 「태조세가」 15년(932) 5월 갑신일 기록에서, 태조가 신하들에게 효유(曉諭)하기를, 고려 건국 직후 장차의 도움으로 정하고자 서경(西京)을 복구하였는데, 그 노역과 세금이 심한 때문이었는지 민가에서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는 재변(民家雌雞化爲雄)과 대풍이 불어 관사가 무너지는 재변(大風官舍頽壞)이 발생하였다 하고서, 이에 대해 복자(卜者)가 해석하기를, “사람이 분에 넘치는 뜻을 품었으므로 하늘이 경계(警戒)를 내린 것”(人懷非分 天垂警戒.)이라 하였고, 또 『상서지(祥瑞志)』에 이르기를 “행역(行役)이 공평하지 못하고 공부(貢賦)가 과중하면 하민(下民)들이 위를 원망하여 이러한 징조가 나타난다.”(且祥瑞志云, 行役不平 貢賦煩重 下民怨上 有此之應.)고 하였으니, “과인은 이로 인해 천谴(天譴)이 이를까 밤낮으로 근심스럽고 두려워서 감히 편안히 있을 수가 없다”(竊恐緣此 以致天譴 夙夜憂懼 不敢違寧.), 그리고 이 재이는 군신들이 공도(公道)를 잘 행하지 못하여 백성들이 원망과 비분을 품어 발생한 것이라 하겠으니 각자 마음을 고쳐 먹어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하라고 타일렀다.⁶⁰⁾

이상에서 두 재이 사건을 거론하고서 “『상서지(祥瑞志)』”를 인용하여, 과중한 행역(行役)과 공부(貢賦)로 백성들의 원망을 사는 까닭에 재변이 발생하였다 하고서, 이를 하늘이 내리는 견고(譴告)로 받아들이는 내용이다. 고대 제왕학의 하나인 천견론이 고려 건국기부터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그 천견의 징조가 재이 사건으로 나타났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 때 재이 해석의 근거로 제시된 『상서지』가 바로 본고의 『천지서상지』를 지칭하지 않을까 추정된다. 중국 고대 문헌 중에서 ‘상서지(祥瑞志)’란 제명의 책을 찾아보면 『남제서(南齊書)』 「상서지(祥瑞志)」⁶¹⁾가 있으나 해당 내

60) 『高麗史』 2卷 世家2 太祖2 15년조 (壬辰)十五年 夏五月甲申 諭群臣曰, “頃完葺西京 徙民實之 冀憑地力 平定三韓 將都於此. 今者民家雌雞化爲雄 大風官舍頽壞 夫何災變至此. 昔晉有邪臣 潛畜異謀 其家雌雞化爲雄. 卜云: ‘人懷非分 天垂警戒.’ 不悛其惡 竟取誅滅. 吳王劉渙之時 大風壞門拔木. 其卜亦同 渙不知戒 亦底覆亡. 且祥瑞志云: ‘行役不平 貢賦煩重 下民怨上 有此之應.’ 以古驗今 豈無所召. 今四方勞役不息 供費既多 貢賦未省, 竊恐緣此 以致天譴 夙夜憂懼 不敢違寧. 軍國貢賦 難以蠲免. 尙慮群臣 不行公道 使民怨咨 或懷非分之心 致此變異, 各宜悛心 毋及於禍.”

61) 『남제서』 권18, 지제10에 지명(志名)으로 「상서지(祥瑞志)」가 18쪽 분량으로 짧게 수록되었고, 이어서 권19 지제11 「오행지(五行志)」가 역시 19쪽 가량으로 짧게 실렸다. 만약 위의 계화(雞禍) 재변이 수록된다면 「오행지」에 실릴 성격이라 보이며, 「상서지」는

용이 없고, 문맥상 재이와 천건을 논한 『천지서상지』일 개연성이 높다고 보인다. 다만 잔존본 『서상지』에서 해당 내용을 아직 찾지 못하여 실전된 부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보이나, 이 문제는 『서상지』 전체를 활자화하고 번역하는 작업을 하였을 때 더욱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다.

위에 언급된 두 재이 사건 중에서 첫째,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는 재변은 닭에서 발생하는 계화(雞禍)를 일컫는다. 『고려사』 「오행지」는 이를 목(木)의 재변으로 수록하되, 태조 15년(932) 4월 서경 사람 장견(張堅)의 집 암탉이 수탉으로 변하였는데 석달 만에 죽었다는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계화에 대한 해석으로, 『한서』 「오행지」는 닭이 시간을 주관하여 생활의 절도를 맞도록 하는 모습이 마치 작은 신하(小臣)가 정무를 돌보는 것과 같으므로 신하가 원인이 되는 재이 사건으로 보았고, 『한서』 「오행지」 제7 중지상 『진서』 「오행지」는 암탉이 수탉으로 변한다는 것은 신하가 임금을 업신여기는 징조라 해석하였다. 이런 오행지적 해석에 따라 고려 태조는 신하들이 공도를 잘 못하여 재변이 발생한 것이니 마음을 고쳐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하라고 훈시한 것이다.

둘째 대풍으로 관사가 무너지는 재변은 『고려사』 「오행지」가 토(土)의 재변으로 수록하되, 태조 15년(932) 5월 갑신일 서경에 대풍이 불어 관사가 무너지고 지붕기와가 다 날라간 재해가 발생하자, 승려들을 불러모아 경전을 외우게 하는 송경(誦經) 기양(祈禳)을 시행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대풍 퇴괴(頽壞)에 대한 재변적 해석은 『남제서』 「오행지」의 토행편에 따르면, 토(土)는 명철한 마음(思心)으로 오사(五事)의 주인이 되는데 인군(人君)이 명철하지 못하고 전횡하면 그 징벌로 대풍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군주인 태조가 신하들의 잘못을 명철히 판단하여 백성들이 원망을 품지 않도록 하기를 촉구한 것이 된다. 여기서 대풍(大風)은 지금의 태풍과 같다.⁶²⁾

황문랑(黃門郎) 소간(蘇侃)이 찬한 『성황서응기(聖皇瑞應記)]와 영명(永明) 연간에 유은(庾溫)이 찬한 『서응도(瑞應圖)] 등을 참조하여 편찬한 것인데, 백작(白雀), 삼족오(三足鳥), 가화(嘉禾), 연리수(連理樹) 등 상서로운 동식물과 자연물의 사건 위주로 엮었고, 『오행지』는 홍범구주의 오행과 오사(五事) 재이에 따른 서술을 하고 있다.

62) 김일권, 『고려사의 자연학과 오행지 역주』(한중연, 2011)에서 『고려사』, 「오행지」 전체가 역주되어 있다.

2. 다음으로 『고려사』, 「오행지」 권53, 화행조(火行條), 인종 8년(1130) 8월 기록 중 일자(日者)가 올린 주언(奏言)에는 명백히 “『천지서상지(天地瑞祥誌)』”를 인용한 대목이 있다.

인종 8년(1130) 8월 을미일 초경(初更, 초저녁 8시경)에 불그림자 같은 적기(赤氣)가 감방(坎方, 북방)에서 일어나서 북두칠성 두괴 안으로 들어가 불규칙하게 일어났다 꺼졌다 하다가 삼경(三更, 자정 전후)에 이르러서야 없어졌다. 일자(日者)가 아뢰기를, “『천지서상지(天地瑞祥誌)』에 의하면 적기(赤氣)가 화영(火影)처럼 나타나는 것은 신하가 그 임금을 모반할 징조이니, 엿드려 바라건대 덕을 닦아 재변을 해소토록 하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⁶³⁾

여기서 적기(赤氣)는 극광(極光)의 일종인 오로라를 뜻하며, 『고려사』 「오행지」에 무려 204건이 기록될 정도로 매우 빈번히 발생한 천변현상이다. 이 적기 천변의 해석에 『천지서상지』를 인용하였고, 내용상 적기는 운기(雲氣)의 일종으로 파악되므로 해당 대목은 아마도 실전된 권10 「운기편(雲氣篇)」 중의 <오색운기(五色雲氣)>에 수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료는 전칭으로 『천지서상지』라 하였기에 더욱 살수진의 『천지서상지』를 분명하게 지칭한다.⁶⁴⁾ 지(誌)는 지(志)와 통하는 글자이다.

이로써 『고려사』 「오행지」와 「천문지」에 실린 천변과 각종 재이 사건의 해석에 『천지서상지』가 원용되었을 측면이 다분함을 읽게 된다. 또 이 『고려사』의 대목은 실전된 『서상지』의 일문(逸文)을 보충하는 역할도 겸하여 그 사료적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

아직 잔존하는 『서상지』의 전문이 판독되어 있지 않아 이를 활자화하고 번역하는 작업이 전면적으로 요청된다 하겠다. 이 번역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통해 『고려사』 전체를 재검토하여 새로운 자료 발굴이 가능할 기대성이 있다.

화영의 적기가 북쪽 하늘 북두칠성 두괴 근처에 서너 시간 출현한 사건이 재이 현상으로 간주된 것은, 아마도 이 천변이 기록된 인종 8년(1130) 무렵

63) 『高麗史』 53卷 志7 五行1 火, 仁宗八年, 八月乙未初更 赤氣如火影 發自坎方 覆入北斗魁中 起滅無常 至三更乃滅. 日者奏: “天地瑞祥誌云 赤氣如火影見者 臣叛其君 伏望修德消變.”

64) 김일권, 『高麗史 五行志 譯註(3) 火行篇』, 『고려시대연구』 VIII, 한중연, 2005, 1-79쪽.

이 묘청의 서경 천도 문제를 놓고 정치적 대립이 벌어지던 때여서 그 서경 천도의 부당성이 이미 하늘로부터도 견계(譴誡)로 내려진 것임을 드러내려는 의도라 하겠다.⁶⁵⁾

묘청은 요나라(916~1125)가 멸망하고 금나라(1115~1234)가 일어서는 대 격변기에 국권 강화를 위한 서경 천도 운동을 벌였으며, 인종 7년(1129) 서경에 새 궁궐을 지었고, 마침내 인종 13년(1135) 1월 서경에서 국호를 대위(大爲), 연호를 천개(天開)라 하면서 서경 천도난을 일으켰으며 1년여를 버티다 인종 14년(1136) 2월에 진압되었다.

『고려사』 「오행지」에는 이를 시사하는 재이 사건이 상당히 많이 수록되어 있다. 예컨대, 인종 7년(1129) 9월에 서경 중흥사(重興寺) 탑에 벼락이 쳤고, 동 8년(1130) 9월에 역시 중흥사탑에 벼락이 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동 9년(1131) 8월 서경 대화궐(大華闕)의 서쪽 산에 산불이 났고, 동 11년(1133) 12월 짙은 안개가 5일간이나 지속되었고 또 나무에 얼음이 맺혔는데 이 대무(大霧)와 목빙(木冰)의 재변은 묘청 등이 왕을 서경으로 행차토록 강권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태사(太史)의 재이적 해석도 실려있다. 자연 재변의 정치적 해석이 강하게 통용된 시대임을 잘 보여준다.

3. 마지막으로 『고려사』 「예지·군례(軍禮)」 중 <계동대나의(季冬大儺儀)> 조목에서도 『천지서상지』가 직접 인용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정종(靖宗) 6년(1040) 11월 무인일 왕의 조칙에서, “짐이 즉위한 후 호생(好生)할 것을 마음 먹고 새, 짐승, 곤충까지도 모두 나의 혜택을 입도록 하려 하였다. 그런데 세종(歲終)에 행하는 나례(儺禮)에 닭을 다섯 마리씩이나 찢어죽여 역기(疫氣)를 구축(驅逐)하려 하니 짐의 마음이 몹시 아프다. 될수록 다른 것으로 대용하게 하라”고 하였다.

이에 사천대(司天臺)에서 아뢰기를, “『서상지(瑞祥志)』에서 말하기를, ‘계동의 달(12월)에 해당 부서에 명하여 대나의(大儺儀)를 행할 때에 두루 토우(土牛)를 찢어 한기(寒氣)를 보내도록 한다’ 하였으니, 청컨대 각각 길이 1척, 높이 5촌 되는 황색의 토우 네 마리를 만들어 닭의 대용으로 삼기 바랍니다.”고 하니 왕이 그대로 하게 하였다.⁶⁶⁾

65) 이희덕, 『高麗史·五行志 譯註』, 『고려시대 천문사상과 오행설 연구』, 일조각, 2000, 254쪽 참조. 여기서는 天地瑞祥誌를 “未詳”(256쪽)이라 처리하였다.

여기 인용된 “서상지운(瑞祥志云)”의 구절은 살수진 편찬의 『천지서상지』 권20 「제례편(祭禮篇)」의 <나조(儺條)>에 “季冬之月, 命有司大儺, 旁磔出土牛, 以送寒氣.”(출이 더 있음)로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으므로, 『고려사』 「예지」의 『서상지(瑞祥志)』가 『천지서상지』의 줄임말임이 분명하다.⁶⁷⁾ 이 때 「오행지」의 인종 8년조에서 지(誌)라 한 것과 달리 지(志)라 표기하고 있다. 곧 『천지서상지(天地瑞祥誌)』와 『천지서상지(天地瑞祥志)』의 두 표기가 혼용된 것이다. 그렇다면 「태조세가」 15년조의 『상서지(祥瑞志)』도 허용되는 범위의 글자 출입 문제로 다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예지」의 『서상지(瑞祥志)』와 동일한 서명(書名)이라고 할 만하지 않을까 한다.

한편 『천지서상지』에 인용된 나례(儺禮) 구절은 『주례(周禮)』와 『예기(禮記)』를 인용하고 있듯이 조사 결과, 『주례』 「하관(夏官)」의 <방상씨(方相氏) 조> 및 『예기』 「월령」의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다만 『예기』 「월령」이 계춘(季春)과 중추(仲秋) 및 계동(季冬)으로 분리하여 서술한 것에 비해, 『천지서상지』는 이들을 묶어놓은 정도이다.

그렇다면 『천지서상지』가 왜 『주례』와 『월령』 둘을 인용하였을까 생각해 보면, 나례가 지닌 두 가지 측면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나는 『주례』의 방상씨 나례 측면으로 장례식에 행하는 축귀(逐鬼) 의례 성격을 말하고자 하였고, 다른 하나는 『월령』의 계절(季節) 의례 측면으로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換節期)마다 더위와 추위를 잘 보내고 맞이함으로써 계절적 질병과 역병을 방지하려는 계절적 송기(送氣)와 영기(迎氣) 의례 성격을 담고 있다. 둘다 역귀(疫鬼)를 쫓는 축역(逐疫) 축귀(逐鬼)를 목적으로 삼는 까닭에 같은 나례 형식을 취한 것이며, 그러나 장례식 방상씨는 망자의 천도에 부정을 타지 않게 하려는 목표를 지니고, 월령의 나례는 계절 변환에 따른 한난(寒暖) 기운의 원만

66) 『高麗史』 64卷 志18 禮6 軍禮·季冬大儺儀條, 靖宗六年 十一月戊寅, 詔曰: “朕卽位以來, 心存好生, 欲使鳥獸昆虫, 咸被仁恩, 歲終儺禮, 磔五雞, 以驅疫氣, 朕甚痛之, 可貸以他物.” 司天臺奏: “瑞祥志云: ‘季冬之月, 命有司, 大儺, 旁磔土牛, 以送寒氣.’ 請造黃土牛四頭, 各長一尺 高五寸, 以代磔雞.” 從之.

67) 『天地瑞祥志』 권20 儺條의 전문, “『周禮』曰: 方相氏 [掌]蒙熊皮 黃金四目 玄衣朱裳 執戈揚楯 帥百隸, 而時難 以索室毆疫. /大喪先柩(ㄷ+舊) 及墓入壙以戈擊四隅毆方良. 『禮記月令』曰: 季春之月, 命國儺, 九門磔穰, 以畢春氣. /仲秋之月, 天子乃儺, 以達秋氣. /季冬之月, 命有司大儺, 旁磔出土牛, 以送寒氣. /祠令曰: 季冬晦, 堂贈儺磔牲, 於宮門及城四門, 各用雄雞一, 將預前一日, 所司奏聞”(『通彙』 4-445).

한 교체를 목표로 내세운다.

『천지서상지』 및 『주례』 「하관」의 <방상씨>조를 번역하여 살펴보면, 이상 시절(時節)의 축역 나례와 장례식 축귀 나례라는 두 측면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 ① 방상씨는 황금으로 만든 4개의 눈을 박은 곰가죽을 뒤집어쓰고, 검은 색 상의와 붉은색 치마를 입고, 양손으로 창과 방패를 들고, 100명의 무리를 이끌고서, 시절(時節)의 곤란(困難)이 있을 때 집안을 뒤져 역질을 몰아낸다.
- ② 대상(大喪)이 있을 때는 영구(靈柩)의 앞에 가고, 묘지에 이르면 묘광(墓壙)에 들어가 창으로 네 모서리를 쳐서 망량(魍魎)을 쫓아낸다.⁶⁸⁾

위 ①에서 ‘시난(時難)’을 말하고 있는데 나례(儻禮)의 나(儻)가 여기에서 나온 말임을 보여준다. 이에 시난(時難)은 시나(時儻)인 것이다. 말하자면 계절[時]이 때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인데 무언가 어긋나 때에 맞지 않아 발생하는 곤란(困難)을 뜻하는 말이 나(儻)이고, 이 계절 이변에 따른 역질과 재해를 방지하고 억제하는 행사를 나례(儻禮)라 이른 것이다. 후술하는 자료를 보면 특히 한기(寒氣)와 난기(暖氣)에 따른 기상변화의 계절조절 의례는 나례의 핵심 관점이 되고 있다.

다음 『천지서상지』에는 『예기』 「월령」과 『사령(祠令)』을 인용하고 있으며 이를 번역하여 살펴보면, 시나(時儻)의 환절 의례로 접근되어 있다.

- ① 계춘의 달에, 나라에 명하여 나례를 행하며, 구문(九門, 모든 문)마다 허수아비를 찢어갈라 춘기(春氣)가 마쳤음을 보인다.
- ② 중추의 달에, 천자가 곧 나례를 행하여 추기(秋氣)를 도달하게 한다.
- ③ 계동의 달에, 해당 유사에게 명하여 대나(大儻)를 행하며, 두루 토우(土牛)를 찢어갈라 한기(寒氣)를 보낸다.
- ④ 사령(祠令)에 이르기를, 계동(季冬) 그믐날에 본당(本堂)에서 나(儻)를 보내 궁문(宮門) 및 도성 4대문에서 희생을 찢도록 하되, 각기 소용되는 수탉 한 마리씩을 나의를 행하기 하루 전에 소속 관사에 주문토록 한다.

여기서 『사령』은 당시 당나라 조정의 예부(禮部)에서 사용하던 세부 시행

68) 지재희, 이준영 역, 『주례』, 자유문고, 2002, 362쪽 참조.

령을 일컫는다. 『서상지』에는 많은 사령들이 언급되어 있어 이를 모아 연구하는 의미도 클 것이다. 그런데 『예기』 「월령」은 『여씨춘추』 「십이기」을 전승한 것인데 글자 출입이 있다. 이를 대조하여 제시한다.

자료 1. 『천지서상지』 소재 나례

『禮記月令』曰: 季春之月, 命國儺, 九門磔攘, 以畢春氣.

仲秋之月, 天子乃儺, 以達秋氣.

季冬之月, 命有司大儺, 旁磔出土牛, 以送寒氣.

祠令曰: 季冬晦, 堂贈儺磔牲, 於宮門及城四門, 各用雄鷄一, 將預前一日, 所司奏聞.

자료 2. 『예기』 「월령」의 나례

季春之月, 命國難(儺), 九門磔攘以畢春氣.

仲秋之月, 天子乃難(儺)⁶⁹⁾, 以達秋氣.⁷⁰⁾

季冬之月, 命有司大難(儺), 旁磔, 出土牛, 以送寒氣.⁷¹⁾

자료 3. 『여씨춘추』 「십이기」의 나례

季春之月, 國人儺, 九門磔攘, 以畢春氣. 行之是令, 而甘雨至三旬.⁷²⁾

仲秋之月, 天子乃儺⁷³⁾, 禦佐疾, 以通秋氣.⁷⁴⁾

季冬之月, 命有司大儺, 旁磔, 出土牛, 以送寒氣.⁷⁵⁾

이와 같이, 「십이기」에는 「월령」보다 좀더 자세하며, 계춘의 달에서 “이 월령을 시행하면 감우(甘雨)가 30일간 이른다.”란 말이 덧붙여 있다. 중추의 달에서도 “천자가 곧 나라를 행하여, 역질을 방어토록 도움으로써 가을 기운(秋氣)이 잘 소통토록 한다.”고 부연되어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나례는 기본적으로 그 성격이 음기(陰氣)가 성할 때 역귀(疫鬼)가 이를 타고 일어나 질병과 음해를 일으킨다고 보고서 이를 예방하

69) 「십이기」는 儺.

70) 「십이기」는 禦佐疾, 以通秋氣.

71) 『禮記訓纂』, 清 朱彬 撰, 中華書局, 1996, 饒欽農 點校排印本.

72) 『예기』, 「월령」에는 ‘行之是令, 而甘雨至三旬’의 문장이 없음.

73) 「월령」은 難.

74) ‘禦佐疾, 以通秋氣’가 「월령」은 以達秋氣.

75) 高誘注, 『呂氏春秋』, 上海書店刊, 諸子集成本.

고 억제하려는 목적의 역귀 방제 의례라 하겠다. 계절조절의례로서 시나(時儼)로 들어가면, 첫째, 계춘 나의(儼儀)를 통하여 아직 남아있는 겨울의 한기(寒氣)를 물리침으로써 역귀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둘째 중추 나례는 계추(季秋)가 아닌 한가을에 행하는 것인데, 중추의 달에도 여름철 양기가 쇠하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되어 역질이 발생한다고 보고서 천자가 가을 기운을 소통시켜 음기를 지상으로 도달하게 하는 의식이다.

셋째, 계동 나의는 계절이 바뀌는 때이기도 하지만 더욱 큰 한 해가 바뀌는 때이므로 더욱 큰 의의가 부여되며 그래서 이 경우는 특별히 대나(大儼)라 이름하였다. 따라서 계동 대나의는 가장 음기가 성한 계동의 끝무렵이자 그 해의 마지막인지라 신년을 맞이하기에 앞서 묵은 해의 악귀과 역질을 모두 몰아내는 커다란 의식으로 거행된다. 『고려사』 「예지」나 조선시대에서 계동 대나의가 연말 궁중의 대규모 행사로 묘사되어 있다. 일제시기 고종황제의 운구행렬에서 황금 눈 네 개를 박은 형상의 방상씨 나의(儼儀)가 맨 앞에 선도하고 있는 근대사진첩 장면은 그 나의의 매우 오래된 전승문화 측면을 잘 보여준다. 지금의 우리 민속에서는 설날 직전의 제석(除夕)날 풍속으로서 보다 정월 대보름날 풍속으로서 다소 이동하여 지신밟기나 매굿놀이 등으로 유구한 대나례의 흐름을 쇠고 있다.

덧붙여 『고려사』 「예지」의 정종 6년(1040)조 기록에서 정종대 사천대(司天臺)의 담당자가 대나의를 설명하는 근거로서 『예기』 「월령」을 제시하였어도 충분하였을 터인데, 굳이 『천지서상지(天地瑞祥志)』를 전거로 내세웠다는 것은 고려시대 사천대 관원들이 천지 상서와 재변 및 의례 해석의 중요한 준거로 『천지서상지』를 적극적으로 준용하였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⁷⁶⁾

V. 결 론

지금까지 『천지서상지』라는 새로운 문헌 발굴과 분석을 통해 전통시대 자

76) 이상 『고려사』의 『서상지』 인용 대목과 해석은 김일권의 논문(2002)에 다루었던 바이나 이를 좀더 보완하여 여기에 재수록하였다.

연관에서 비중이 매우 큰 감응의 자연학 측면을 살펴보았다. 『천지서상지』가 이제 고려사 연구의 주된 문헌으로 더욱 조망할 필요성이 커지며, 비록 신라에서 흔적이 잡히지는 않지만 고려 태조 15년(932)조 기록은 아직 신라가 존속할 때이기도 하므로 통일신라에서 이 『서상지』를 활용하였을 측면도 앞으로 주목하여 살펴볼 일이다. 고려 초기와 거의 동시기 고대 일본에서 이 『서상지』를 활용한 사실 등은 고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천지서상지』가 가지는 감응적이고 재이론적인 자연학의 가치로 인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헌에 대해 아직 학계가 주목하지 않고 있기에 본고는 발견은 아니지만 자료 발굴의 성격을 지닌다.

앞으로 잔존본 『천지서상지』에 수록된 동식물, 광물, 기물 등의 자연물과 비바람, 꿈, 혼백 등 자연현상 전반에 대한 서술 내용을 분석하면, 이 시대가 추구하였던 감응 자연학의 면모를 더욱 다양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고대 상상력의 보고인 『산해경』이 땅위에 있을 법한 존재들의 신비적 관찰과 보고에 의한 신화지리서 성격을 지닌다면, 『천지서상지』는 하늘과 땅 사이에 펼쳐지는 자연현상 전반에 대한 관찰과 해석을 담은 신화물리서 성격을 지닌다. 다양한 제례를 통해 자연과 닿고자 하였기에 의례의 신화서 성격도 읽힌다.

여기에는 하늘의 견책이라는 천견사상에 의거하여 천지 사이 발생하는 모든 현상에서 하늘의 의지를 읽으려 하였고, 이의 역관 방향으로 우리 일상의 주변에서 발생하고 관찰되는 다양한 자연물을 통하여 하늘에 소통하려 하였던 인간과 자연의 또다른 교응의 방정식이 담겨있다. 그 자연과의 교감 정도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고 상상적이거나 현상적이고 내밀하거나 급격한 까닭에 이들을 포괄하자면 교응의 자연학이라 할 만한 것이다.

그 교응의 통로가 크게는 상서(祥瑞)와 재이(災異)로 대별되고, 이에 상통하는 용어로 휴징(休徵)과 구징(咎徵)이 있고, 길조(吉兆)와 흉조(凶兆), 서응(瑞應)과 재응(災應)이 있다. 휴징은 서징(瑞徵)의 뜻이다. 따라서 이 둘을 묶는 말은 재상(災祥)과 휴구(休咎) 및 길흉(吉凶)이 된다. 또 서응(瑞應)과 부응(符應)이 좀 다른 맥락을 지니고, 서응(瑞應)과 이징(異徵)이 가능하고, 물응(物應)과 물정(物精)도 있다. 이렇게 많은 용어가 성립한다는 것은 다 시대마다 고심이 다르고 자료마다 성격이 같지 않기 때문이며, 이러한 자체가 우리

문화에서 발달한 교응의 자연학이 매우 풍부할 것임을 시사한다. 재앙(災殃)과 재해(災害), 재변(災變), 재이(災異) 등의 말이 여럿인 것도 다 정도의 차이를 드러내려는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대개 상서(祥瑞)의 상(祥)이 상서롭다는 의미로 알고 있지만 고대 어법으로는 재앙의 측면을 상(祥)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초상 치르고 나서 1주기를 소상(小祥), 2주기를 대상(大祥)이라 하는 용법에 남아있는데 길(吉)과는 다른 흉(凶)의 맥락이 담긴 말이다.

그럼에도 상(祥)을 서응(瑞應)으로 보는 것에는 남북조 이래 강조된 상서의 관심 때문이다. 대략 시대로 나누어 보면, 재이론은 재변이 강조되는 어법이고, 춘추-진한시대에 발달한 천견(天譴) 중심의 사상이라 보이며, 위진당송대 이후로는 상서에 대한 관심이 강화되면서 서응이 부각되었다. 이 서응은 견책과 책망을 위주로 하는 천견과는 다른 방향으로 신상필벌(信賞必罰) 중 신상의 측면이며, 하늘이 보상(報償)하고 위무한다는 의미가 있는 바, 이를 천보론(天報論) 혹은 천찬(天贊)이라 불러 두 방향의 교응 방식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바로 『천지서상지』는 이러한 천보사상 관점이 강한 맥락이다. 아마도 고려인의 관점에서 책망과 보상의 두 관점 중에 서응 위주의 천보를 선호한 것이 아닐까도 생각해본다. 고구려 벽화에 화려한 서물(瑞物)적 묘사가 많은 것도 이러한 시대 분위기의 반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신화물리서로서 『천지서상지』는 물응과 물정, 서응과 이징의 모든 것을 하늘과 땅과 사람 모두에게서 찾는 천지 상서의 신화 공간학을 해석한 이야기책이자, 고대인들이 사유하였던 신화자연학 교재라 할 바이다.

참 고 문 헌

1. 저서

- 김용천·최현화 역, 『천지서상지』, 예문서원, 2007.
김일권, 『고려사의 자연학과 오행지 역주』, 한중연, 2011.
김학주 역주, 『서경』, 명지대출판부, 1982.
이희덕, 『고려시대 천문사상과 오행설 연구』, 일조각, 2000.
지재희, 이준영 역, 『주례』, 자유문고, 2002.
薄樹人 主編, 『中國科學技術典籍通彙·天文卷』, 河南教育出版社, 鄭州, 1995.
清 朱彬 撰, 『禮記訓纂』, 中華書局, 1996, 饒欽農 點校排印本.
清皮錫瑞撰, 『今文尙書考證』, 中華書局, 1989.

2. 연구논문

- 김일권, 「高麗史 五行志 譯註(3) 火行篇」, 『고려시대연구』 VIII, 한중연, 2005.
김일권, 「전통시대 치생의 문화론과 생태자연학적 산림사상」, 한중연, 2014.
김일권, 「『천지서상지』의 역사적 의미와 사료적 가치 : 찬자에 대한 재검토와 『고려사』 所引 記事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26, 한국고대사학회, 2002.
김용천·김경섭·최현화 공동, 「천지서상지 제1」, 『동국사학』 25, 2003.
中村璋八, 「天地瑞祥志について : 附引書索引」, 『漢魏文化』 7, 漢魏文化研究會, 1968.
太田晶二郎, 「天地瑞祥志略說 : 附けたり, 所引の唐令佚文」, 『東京大學史料編纂所報』 7, 1972.

Abstract

A Study of Ancient Corresponding Naturology of Sky-Earth Represented in Cheonji-Seosangji During Koryŏ Dynasty

KIM, Il-Gw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auspicious records written in 『Cheonji-Seosangji(天地瑞祥志)』 as a way of human communicating with the nature in ancient Korea and China. 『Cheonji-Seosangji(天地瑞祥志)』 written in early Tang Dynasty contains various auspicious omens and natural calamities and explains the meaning of these phenomena. Because this book was used to account for astronomical phenomena and many political incidents in Koryŏ Dynasty, it gives a clue to understand the thought about communion with nature and human at that time.

This paper reveals the value of the book 『Cheonji-Seosangji(天地瑞祥志)』 as a key to figure out the ancient mythical thought, showing the contents of this book and the various records that quoted this book during Koryŏ Dynasty.

Key Words : Cheonji-Seosangji, ancient mythical naturology, corresponding naturology during Koryŏ Dynasty, auspicious records of Sky-Earth, communion with nature, ancient astronomy.

* Professor of the Folklore,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교신 : 김일권 1345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종합연구동 414호
(E-mail: namdookim@naver.com)

논문투고일: 2017. 09. 08

심사완료일: 2017. 09. 30

게재확정일: 2017. 10. 01